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49 1981년10월2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October 20,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OCT 2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복합문화주의 10주년

에트닉위한 정책 아니란 반성론

"우리는 두개의 공식어를 갖고 있으나 공식문화는 없다. 어느 에트닉그룹도 다른 에트닉그룹의 우위에 설 수 없다. 어느 시민이나 시민그룹도 캐네디언 이상이나 이하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공정히 대우 받아야 한다." —피에르·트루도 1971년10월8일

캐나다의 복합문화 정책은 지난 8일로 10돌을 맞았으나 무엇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 된다.

이민자나 소수민족 그룹들은 주류사회에 수용되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비록 캐나다에서 태어났어도 주류사회에서 자주 외국인으로 취급 당한다.

"복합문화정책은 소수민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이민자봉사기관의 한 관리는 말했다.

촛점은 피부색깔에 관계 없이 우리는 모두 캐네디언이라는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합문화정책이 명실공히 행해지려면 소수 에트닉그룹의 유능한 인물들이 정부나 단체의 영향력 있는 직위에 앉아 캐나다사회에 그들의 행적을 남겨야 한다고 한 이민자는 주장한다.

웨스트·인디안 코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비벌리·폭스 여사는 복합문화정책은 "고상한 제스처"에불과하고, 잘못 해석됐을 때 캐네디안들이 사분오열 될 우려가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폭스 여사는 "우리 사회에는 블랙(흑인)에 대한 너무 많은 상투적 편견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웨스트인디안·캐네디안, 이탈리안-캐네디언과 같이 에트닉그룹으로서의 캐네디언이 아니라, 단순히 "캐네디안"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역시 이민자사회인 미국에서는 이탈리안, 폴리쉬등 각 에트닉그룹들은 하나의 「아메리칸」으로 일체화됐으나 캐네디안들은 미국인과 같은 민족적 긍지가 없다고 많은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어떤 이민자들은 순수 캐네디안이 되기 위해서는 백인, 앵글로·색슨, 신교도의 세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가 민족문화기구위원회(Council of National Ethnocultural Organization)」라우레아노·리옹 회장은 "지금 이민의 주류를 이루는 유색인종들은 이탈리안이나 다른 초기 이민자들이 일찌기 겪은 것들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리옹 회장은 복합문화정책을 "아주 중요하고 혁신적인" 입법이었다고 찬양하며,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기여가 노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신적인 가치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나라"라고 덧 붙였다.

복합문화주의가 "단지 에트닉그룹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고 말하는 전 복합문화주의 온타리오 자문위원회 위원장 유리·심코주의회 의원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모국어교육프로그램(Heritage Language Program)이 어느때고 해체될 위기에 있다. 에트닉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문화주의는"에트닉" 대신에 "캐네디안"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다른 점보다는 공통분모를 찾아 우리 모두 캐네디안이라는 의식 구조를 형성하도록 주력해야 한다 고 그는 강조했다.

한 낙관론자는 "복합문화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캐네디안들이 유색인종들도 똑같이 캐네디안으로 취급하기까지는 적어도 2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훈"명인위" 방어

도전자 가도오에 4연승

일본 최고기사임을 다시입증

(도쿄=송효빈특파원)일본바둑계의 조치훈군(25)은 전승기록으로「명인위」방어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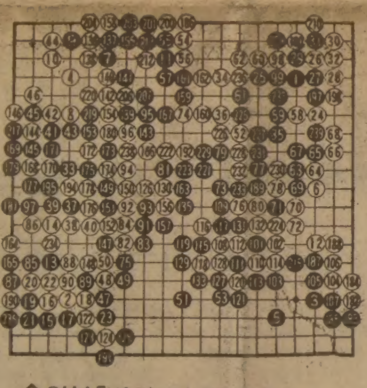
도전자 가도오·마사오(34)에 대해 이미 파죽지세의3연승으로 유리한 고지에올라선 조명인은 지난 15일 상오9 시부터 북해도 삿보로서 속개된 제6기「명인전」7번승부제 4국의 이틀째대국에서 흑돌을 잡고 먼저 둔 이점을 끝까지 살려 나간끝에 239수만에 8집을남겨, 가도오에게 덤 5집반을 주고도 두집반을 이겨 4연승했다.

조명인은 1국에서 3집반 2국에서 1집반, 3국에서 3집반, 4 국에서 2집반, 내리 네판을 쾌승, 지금까지 한번도 타이틀을 방어하지못한 징크스를 깨고「명인위」연속차지에 성공했다.

이번 제4국 대전에서 조명인은 견실한 실리작전으로 하변에 40집이 넘는 방대한 영토를장만, 60수가채되기 전부터 승기를 잡고 낙승을 거두었다. 그는 제한시간 9시간중에서 단1분을 남기고도 전혀 가도오의 추격을 조금치도 허용하지 않았다.

"살인청부업자", "공포의 대마킬러"로 유명한 가도오는 4판을 두는동안 한번도 괴력(怪力)을 보여주지 못한채 무릎꿇고 말았다.

이로써 조명인은 바둑실력이 일본기사 가운데서 "최고수"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일본「명인전」제4국총보
흑=명 인 조치훈(4승)
백 도전자 가도오·마사오(4패)

"창고를 빌려줬을뿐이다"

경찰도 주범 아니 라고

=「국제마약단 사건」속보=

2억달러 마약사건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있는 교포 임태호씨는 19일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창고를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본보기자에게 말했다.

"처음에 이 사건때문에 경찰이 오는바람에 당황했으나 이제는 걱정도 안한다. 나는 아무죄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같이 말했다.

지난5월 나는 퀸·스트릿 사무실의 빈 스페이스를어떤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8월중순경부터 그들은 화장품 원료라는 하얀 가루약 부대를 여러번에 걸쳐 들여왔고, 한번은 이들 요구에따라 거들어 주기까지 했다.

그후 사무실 지하실에쌓아놨던 이 가루부대가 자꾸 먼지를 일으켜 다른곳으로 옮겨 나가라고 했다. 그들이 다른창고를 소개하라고 해서 나는 버킹햄에 있는 창고를 빌려줬다 고 말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마약밀매 혐의에대해 임씨는"하루는 세든 사람들이 미국서 전화를해서 부탁하길래 차를 임대해서 부대를 창고로 옮겨주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프로리다와 뉴욕에 본거지를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일 본보기자와만난 연방경찰 서프린·긴다 마약국장은"우리도 임씨가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는것은 잘 알고 있다. 사건은 계속 미국및 유럽경찰과 공동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긴다국장은"주범들이 아직 안잡혔고, 재판전에는임씨혐의에 대한 증거를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혹시 임씨의 과거경력등을 조사한적이 있느냐는질문에"그의 경력을 조사할만큼 큰 범죄자는 아니다. 다만 좋은(?)비지니스 맨 인것같다"고 덧붙이면서 "우리는 그를 2개월간 내사했으나 그는 우리에게아무런 정보도 주지않았다"고.

임씨는"왜, 알면서 경찰에 통보를 안했겠는가?"하고 반문하면서"한번은이 가루부대에서 풍기는 냄새가 고약하길래 이웃에게물었으나 그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세든사람의 물건내용까지 조사했어야 되느냐"고 항의했다. 또 "내가 바커빌레약을 취급하니까 이런종류의 약도잘 알고 있는것처럼 경찰은의심하나 내 사업은 화공약품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압수된 메타콸론(마약원료)의 싯가는 2억달러를능가, 캐나다 역사상 가장큰 마약밀매사건이다.

메타콸론은 식품및 제약법의 통제를 받고있는 마약원료로서 정제로 만들어진 다음 암시장을 통해 퀘루드(Qualude)라는 이름아래 판매된다.

이번사건수사는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서독및미국 마약단속국 버팔로분국및 미국 여러지역 마약국수사관들이 동원돼서 근 2개월간 계속됐다.

한때 로스만 담배회사세일즈맨을 지냈으며, 바커빌레약을 제조판매해온 임씨는 14일 RCMP마약국에 연행된지 만 3일만에 17일 2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다.

재판은 오는 21일로 내정 됐으나 임씨변호인측 사정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이번주 TV한국◆

22일(목)낮12시~12시30분, 23일(금)밤11시~11시30분(MTV방송)
● 대한뉴스
● 외환은행 개점실황
● 영화「마른 자리」
(주연 이순재)

초만원 경로잔치

푸짐한 음식·경품

지난17일 토론토 한인회(회장 박인순)는 한인회관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약350명의 노년이 모여 초만원을 이룬 이날 노인위안잔치는 국민의례에 이어 박회장의 환영사, 이상훈 총영사의 축사와 정인기 노년회장의 답사및 최사철, 안병한목사의 축사로 제1부 절차를 마치고, 노인들은 한인회간부 부인들이 전날 밤샘하다시피 하여만든 떡, 불고기 초밥등의 도시락 500개를 분배받아 점심삼아 들면서 오락프로를 즐겼다.

한인회 임원들이 노래로 위로하고, 노인들도 노래와 장기자랑등을 하는동안 한국계 식품점등이 제공한경품의 추첨이 있었다.

이날의 특색은 장기철씨의 여흥이었다. 한인회 문화부장인 장씨는 노인들을 웃기며 즐거움을주는 각설이를 불렀으며, 노래부르는 동안 임원들이 즉흥모금으로 거둔 약 60달러를 노년회에 기증했다.

노년회 수양강좌 영어시간 변경

토론토의 한국노년회(회장 정인기)는 지난주부터 영어교실 수업시간을 아래와같이 바꾸었다. 매주 목요일 하오6시30분~10시30분.

한편 11월7일(토)하오1시 한인회관에서 아래와같이 수양강좌를 연다.
● 김보경 박사「이민가정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요동과 이에따른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재조정」
● 이처관 이사「이민생활과 윤리문제」

5천2백여世帶 수록 시카고 한인住所錄에

〈시카고지사〉시카고 한인회는 82년도 주소록에 실릴 시카고지역의 한인주소 정리작업을7일 마무리 짓고 정리된 주소는 스마트 비즈니스 인쇄에 넘겼다.

이날 현재 정리된 주소는 약5천2백여개로 작년도의 3천여개에서 크게 늘어났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GRAND OPENING SPECIALS
"개업특별 할인세일"
기간 : 10월31일까지

(*)UPRIGHT PIANO

KL-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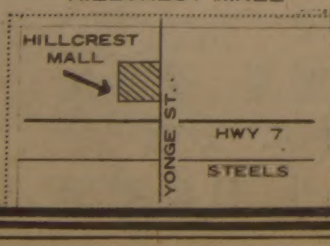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 있는 저희 KAWAI KEYBOARD센터는 금번 HILLCREST MALL안에 또하나의 KEY BOARD 센터를 개설하고 여러분께 특별할인 봉사코저 하오니 계속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CE-7,
(OPEN WALNUT)
REG. $3,125
SPEC. $2,685

(*)GRAND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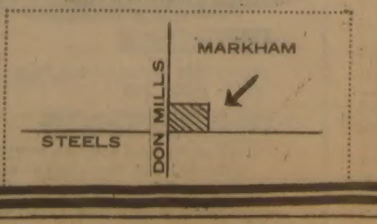
KG-1C
REG. $8,995
SPEC. $7,645

HILLCREST MALL



대표 : 윤 호 섭
전화 : 883-9407, 881-8211
세일즈 매니저 : ALLEN DUMA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토론토에 불우청년의 집

$150만 예산, 커버난트하우스

내년 1월 토론토에는 가출소년, 소녀, 창녀등 거리의 청소년을 위한 봉사기관이 탄생한다. "언더21"(Under 21)이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교 토론토대교구 소관으로 1백5십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토론토 중심가 다운타운에 접수처와 보호소를 만들고, 21세 이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남녀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한다. 이와같은 계획은 이미 미국 뉴욕에서 이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브루스·리터 신부(54세)의 협조와 조언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리터 신부는 69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 「커버난트 하우스(Covenant House)」를 설립하고, 뉴욕·타임스·스퀘어 를 중심으로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을 위해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며 이들을 교화해 왔다. 리터 신부는 토론토의 "언더21"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토론토를 방문, 실태조사등 협조해 왔다.

본 프로그램은 15일 교구센터에서 70여명의 토론토의 신문·방송기자들과 잭·아크로이드 메트로·토론토 경찰국장, 시의회 의장 폴·갓프레이, 아트·이글턴 토론토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카터 추기경이 발표했다.

아크로이드 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시급히 요청되어졌던 것으로 물심양면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했나. 갓프레이 의장도 자기가 듣던중 아주 건설적인 것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리터 신부는 「커버 난트 하우스」에 수용됐던 청소년의 8할은 옛습관을 끊지 못하고, 다시 범죄·마약등 악의 길로 되돌아갔지만, 나머지 2할은 갱생의 길을 되찾았다며, 이와같은 청소년보호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리터 신부가 거리의 청소년에게 관심을 두고 봉사사업을 시작한 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69년까지만 해도 뉴욕 맨하탄칼레지에서 중세신학을 가르치며, 정상적이고 행복한 교수생활을 해온 리터 신부는 어느 일요일 4백명의 대학생들에게 사명감과 열심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 때 과대표가 일어나 리터 신부에게 "설교한대로 행동하라!"고 도전해 왔다.

충격을 받은 리터 신부는 즉시 교회당국의 허락을 받고 마약으로 찌들은 빈민굴 맨하탄의 이스턴·빌리지로 옮겨가 사회 밑바닥을 헤매는 거리의 청소년을 위해 오늘까지 헌신해 왔다.

현재 리터신부의 커버난트·하우스는 뉴욕에만 11군데의 보호소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문제성 있는 도시에 비슷한 기관을 세우는데 전력 협조하고 있다.

◇좌로부터 사회 월 보좌주교, 카터 추기경, 리터 신부

인도 비자면제협정서 제외

시크족들 이민청원도 기각

정치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

15일 로이드 액쉬디(Lloyd Axworthy)이민성장관은 인도인(주로시크족) 들의 불법유입을 근절하려는 새로운 제한조처를 발표했다.

이민성에 의하면 인도사람(주로 시크족)들은 방문자 신분으로 이민을 신청 캐나다 영주를 꾀했다고했다.

"최근 몇달동안 수백명의 인도인들이 망명자 신청을했다. 이것은 순수한 인도인 방문자들의 캐나다 입국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피난민 케이스를 다루는 우리이민제도에 큰 혼선을 주었다"고 액쉬디장관은 말했다.

이민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오기 보다는 보다나은 경제적 조건을찾아오기 때문에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다.

이로서 인도는 '77년이후 이민법 남용으로 비자면제협정국에서 제외된 12번째의 나라가 됐다. 같은이유로 비자면제협정에서 제외된 다른 11개국은 파키스탄, 나이제리아, 콜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쿠바,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우간다, 칠레, 하이티로 대부분 남미와 아프리카국들이다.

9월현재까지 캐나다에는 약1천5백명의 시크족(Sikhs)들이 인도정부의 정치적 박해를 근거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 인도정부가 그들이독립 시크국가를 건설하자는 칼리스탄사상을 지지하기 때문에 박해한다고 이민 청원서에서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피난민청원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590개 신청서중 어느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1170건은 아직 심사중이다. 작년에도 25건의 망명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작년 인도 이민자수는 8천5백명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많은 이민 숫자이다.

인도정부는 캐나다정부가 시크족들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이면 시크족 독립운동을 측면지원한다는 인상을 주기때문에 이번 제한조처를위해 캐나다정부에 많은 입김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난민문제에 있어서 너무 온전했다고 비난을 받아온 액쉬디장관은 이번제한조처로 면모를 일신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도 순수한 정치적 망명자에겐언제나"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액쉬디장관은 최근 홍콩, 말레지아 인도등을 방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장관은 월남난민문제에도 언급"그들의 대부분은 정치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로 모국을 버린다"고 말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세계적 전자제품 생산국

기술집약적 생산 시급

(서울16일=연합)한국, 타이완, 홍콩및 그밖의 아세안(ASEAN)의 5회원국들은 세계적으로 라디오, 흑백TV등 경전자 제품의 주요생산국으로 부각됐다.

한편 일본은 세계제일의 정밀하고 기술집약적 전자제품 생산국으로 비데오테이프, 칼라TV등을 생산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8개국은 78년 세계시장에서 라디오 생산의 67.8%, 흑백TV 44.1%, 카셋라디오 45.6%를 기록했다.

한편 일본은 같은해에94.2%의 비데오테이프, 51.8%의 스테레오세트, 26.7%의 칼라TV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동조사는 한국이 정밀, 기술집약적 전자제품을생산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선진기술의 도입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참호」속의 모세다얀—「검은 안대」와 「탁월한 전략가」로 이름을 날린 모세다얀 전이스라엘국방상이 73년 6일전쟁당시, 참호속에서 전선을 시찰하고 있던모습.

「애꾸영웅」숨지다

이스라엘 전국방상 다얀장군

不可能은 없다」를 哲學으로 삼은 名將

67년 이집트와의 戰爭서 勇猛떨쳐

사다트에 이어 두명의 巨物잃은 中東

〈텔·아비브 〉 67년 중동전의 영웅인 모세·다얀 전 이스라엘외상이 16일 이스라엘수도 텔·아비하사워 병원에서 사망했다. 올해 66세.

이스라엘 국방상도 역임했던 모세·다얀은 심장과 호흡기장애로 15일 병원에 긴급입원했었다.

모세·다얀은 1979년 6월 장암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심장질환 관계는 없었으나 그는 1979년 12월, 현 베긴 수상과의 불화로 외상직을 사임했다.

1915년 5월20일 유대인협동농장에서 팔레스티나의 첫 출로 태어난 다얀은 나이 14세때 부터 소년병으로 입대, 활약했으며 1948년도 이스라엘독립전쟁시는 대대장으로, 1956년에는 참모장으로 승격해 1967년과 1973년 두차례의 중동전 당시 국방상으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전세계에 그용맹을 날렸다.

모나컴·베긴 이스라엘 수상은 다얀장례식을 국장으로 엄수한다고 발표했다.

모세·다얀은 자부심과 긍지로 일생을 보낸 이스라엘의 전쟁영웅—스스로를 일컬어 평민이라 겸손했으나 세계적으로 볼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상징처럼 보여진 군인정치가 였다.

외눈의 강직한 모습의 다얀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이 주위 아랍국과 생존권을 겨루는 1956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시 1967년 중동전을 단6일만에 끝내는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명성은 전세계에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영웅으로 개선한 그는 곧 정계에 진출했다.

그는 중동평화의 디딤돌이 된 캠프·데이빗 회담의 결실을 위해 노력해 그자신이 싸운 적국 이집트와 평화를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이회담을 진행시키면서 중동의 난제점인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적극 주장했으나 수상 베긴은 철저한 팔레스타인 강경책과 적돌해 1979년 10월 외상직을 사임했다.

그후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당활동을 벌여 「텔렘(TELEM)이란 명칭으로 정당을 창립시켰으나 1백20석 의석에서 2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불운을 맛보았다.

외상직에서 사임한 이후 그는 아랍지도자들과 비밀회담도 가졌으며 점령지 영토의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도 교류하여 평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평소 『불가능이란 없다』를 신념으로 내세웠든 다얀은 『나는 내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이상 좋은 결과를 기대치 않는다』고 말해왔다.

정치란 국민들에게 평화를 부여키 위한 제도라는 신념을 확고히 지녀왔던 모세·다얀의 죽음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이집트 사다트암살 10일후에 나타났다.

이같은 양지도자가 타계한 것은 중동세계의 한막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의 얼굴을 가진 꼬마스타—TV광고 모델이며 배우인 피터 빌링스(10세)군의 여러가지 표정. 그는 이미 1백가지이상 광고에 출연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블루제이스 최동원의 기득권가져

거부하면 미국, 일본 프로팀 진출막혀

한국의 야구선수 최동원투수와의 계약분쟁으로 말썽중인 토론토·블루제이스는 지난 9월28일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리·맥테일 회장으로부터 최선수 입단계약서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최선수에 대한 기득권을 갖게됐다.

16일 블루제이스 엘리옷·와일부장은 맥테일회장의 추인을받은 계약서 사본을 본보에 전하면서 "우리는 최가 내년봄에 꼭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동원선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어느프로구단도 블루제이스의 동의없이는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최동원 선수는 블루제이스와의 계약발표후 계약내용에 불만, 블루제이스에는안 가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최」측은 계약내용중 메이저리그 올스타나 사이영상을 조건으로 한 5만달러의 보너스는 기만적인 것이라면서 이같은 조건으로는 토론토에 오지 않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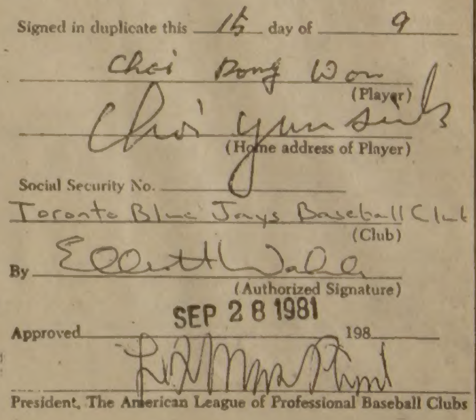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블루제이스가 소속한 아메리칸리그의 계약승인으로 미국의 어느프로구단도 「최」와 임의로입단교섭을 할수 없게 됐다.

또 최선수는 이미미국프로야구와 일본프로 야구의 협약 때문에 일본프로팀진출도 막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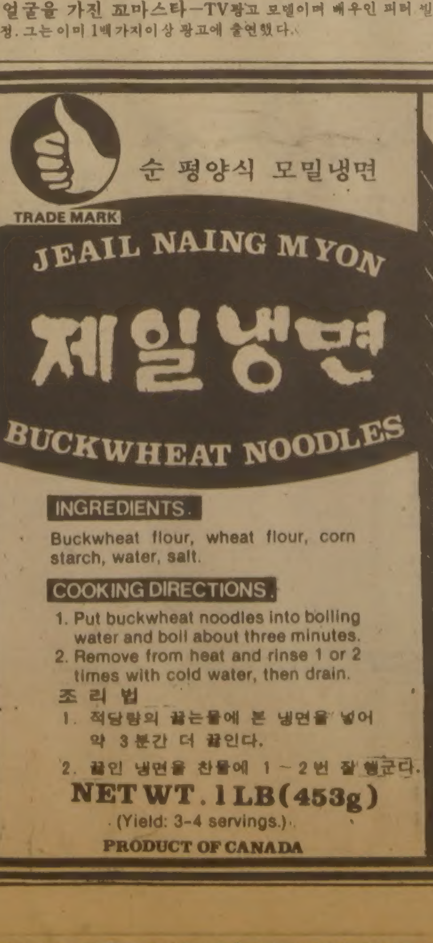
미국프로팀은 쿼터에 의해 미국선수의 일본프로방출을 허락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최」선수의 병역문제이나 현재 한국정부 분위기로는 국회에 상정중인 우수선수병역면제법안이 금년안 통과될 것 같다.

따라서 최선수가 프로진출을 원하면 반드시 토론토로 와야만 한다.


Signed in duplicate this 15 day of 9
Choi Dong Won
(Player)
Choi yun sik
(Home address of Player)
Social Security No.
Toronto Blue Jays Baseball Club
(Club)
By
(Authorized Signature)
SEP 2 8 1981
Approved 198
President, The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

◇최동원선수와 블루제이스의 계약서 서명 마지막부분. 최선수의 부친 최윤식씨의 서명도 보이고, 아메리칸 리그 리·맥테일 회장의 추인서명도 보인다.



순평양식 모밀냉면

(카나다에서 직접생산 판매중)

모밀냉면이 새로 나왔읍니다.
옛날 고향에서 잡수시던 모밀냉면을 이곳
카나다에서 엄격한 식품검사를 거친 시설을 갖추고
「**제일냉면**」이라는 상표로 생산, 시판하고 있읍
니다. 한번 잡수시어 보시고 많은 애용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 각 한국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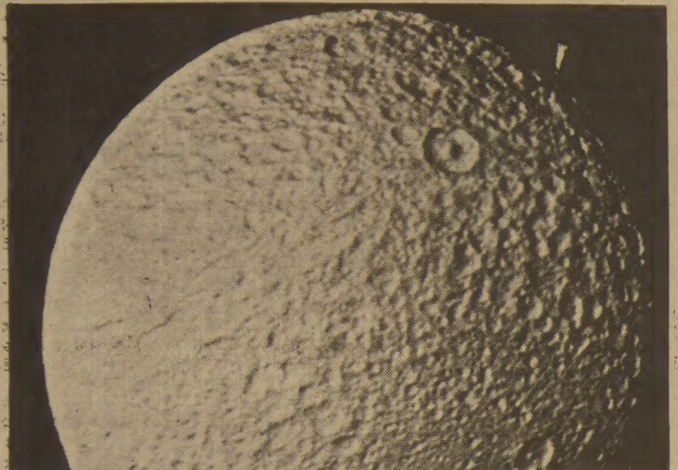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
(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앞으로 18년뒤 1999년엔

"지구가 멸망한다"

현대인의 不安心理를 겨냥 마구잡이式으로 경쟁 출판

聖經 계시록 인용, 行星直列현상" 지구균형 깨진다"



「1999년, 앞으로 18년 뒤에는 인류가 살고있는 이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의 「공포예언서」가 최근 출판가에 잇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다. 「1999년8월18일 지구의 최후의날」(K사간)「1999년 죽음의날」「지구의 극이동을 예측한다」(K사간)「1999년7월」(D사간)「계시록의 대예언」(B사간)「대예언」(K사간)등 7개출판사에서 무려10종이나 내놓은것. 이책들은 중세 프랑스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1503~1566년)가 쓴 예언서「모든세기」에서 예언한것이 그동안 얼마나 잘맞아 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2)성경중의 예언부분인 요한계시록을 인용 풀이하면서 (3)여기에 현대우주과학과 점성술을 통한 행성직렬현상·대 크로스현상·극변동·공포대왕의내습등으로 인해 1999년에는 지구가 멸망할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갈되어가는 에너지문제, 식량난과 인구폭발, 핵전쟁의 위험과 환경오염의 확산,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커다란 사고에 의한 인간의 떼죽음 등등 20세기후반 지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이같은 출판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책들에 따르면 내년에는 태양·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천왕성·해양성·명왕성이 일직선상으로 놓이게 되는 직렬현상이 생긴다는것. 이에 따라 지각 제2내층의 변화, 암유권의 마그마가 영향을 받음으로써 지구의 균형이 무너져 지질구조가 격변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어 1999년에는 대크로스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태양·수성·금성·지구·천왕성·해왕성이 직렬을 이루고 화성, 달·지구·목성·토성이 또하나의 직렬을 이루어 그4각에 사자·황소·전갈·물별좌가 횡각으로 대립된다는 것이 점성술에서 전망하는 크로스설이다.

대크로스 현상이 생기면 극과극이 뒤틀리는 극변동, 해일, 지진, 질병등으로 지구가 급변,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책들은 예언하고 있다.

이들 10종의「…예언서」들은 모두나 일본, 미국책을 번역한 것들.

일본인 고도·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기초로 일본의 입장과 운명에 관해 중점적으로 풀어쓴것이 4곳에서 번역됐고 페닉스·노아란 이름으로 일본서 활동하고있는 점성가의 책, 그리고 미국인 고고학자로「수수께끼의 버뮤다히역」을 썼던 찰즈·버리츠의 것이 번역, 출판된것이다.

그러나 인류 혹은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점이 많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風速計

미래학자와 예언자

노벨受賞者가 외치는 良心의소리
物質·技術의 교만은 망조이다

서구문명의 몰락을 말한 미래학자 스펭굴러는 과학적 이론에 추리의 결론을 말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란 청년은 포로의 압박중 민족해방과 국가회복을 상염중 교만과 환락에 도취되고 성문란에 발광하는 무리들이 알지못하는 역사의 징조를 읽고 뜻을 밝혀낸 예언자였다.

금세기의 예언자와 미래학자는 무엇을 보고 뜻을 밝히는가.

미국이 국력을 세우기위해 무력증강, 부익부의 정책을 강화한다니 노벨상수상자53인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굶주림과 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미국의 위신회복은 국력과 부를 병들고 굶어죽어 가는 사람들께 바쳐질때 청교도의 기풍이 살아 참자 유의 세계를 이루리라.

예언한다고 사기공갈 만담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한국의 많은 흉행사를 거론할 여지없지만 다소라도 인류의 앞날을 우려하는지사가 있다면 부강의 교만과 포만의 도취 스포츠란 미명의 도박의 광란, 성문란의 발광등 그 징조가 망조라할수 있다.

일정때 일본이 한국청년의 기를 꺾기위해 한국지성 청년들을 군비공장에 관광시킨후 소감을 물었을때 이상재 청년은「성경에 칼쓰는자 칼에 망한다」고 말했다.

그 예언은 맞아 2차대전때 원자탄 두개에 무조건 항복했다.

미래학자는 물자, 수, 지식, 기술등을 보나 예언자는 양심을 본다.

양심도 참양심, 칸트가 말한 창공의별과 사람의 양심에 경탄해마지 않음같이 예언자의 양심소리에 귀를 기울리라.

악은 망하고, 선은 번영한다.

정의는 내일을 꽃피우나 죄는 소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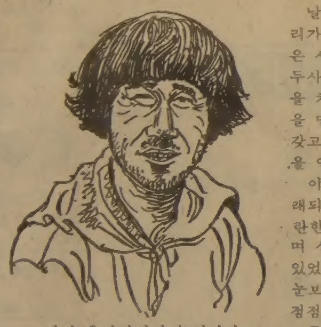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⑲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개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알렉카하우는 사슴뿔을 잘라 만든 브레이크를 한발로 눌러 눈위에서 탈탈거리는 썰매를 거우 멈추게 했다.

칼룩의오빠 카렐로가 누이를 털가죽 밑에서 끌어내리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눈위에 뒹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뻣뻣이 얼어붙은 사지가 풀렸다. 그녀의 두 아이들도 두꺼운 옷속에서 빠져나와 이글루의 문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둘째번 사람이 개들을데리고가서 말뚝에 매는동안 알렉카하우는 카렐로와 함께 근처에 있는 눈으로 두껍게 벽을이룬 곳으로 가서 그가 가지고있는 긴 버드나무 가지를 눈속으로집어넣고, 밑이 굳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그는 만족한듯이 웃어젖히고는 칼을 꺼내 들었다.

캠프속은 손님을맞아 시끄러워 졌다. 오네쿄우의 부인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자기 이글루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 알렉카하우는 할일이 있어서좀 늦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오네쿄우의 이글루안에 모여서금방들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동안 알렉카하우와 그의 처남은 자리를 골라서 둥그렇게 눈을 파헤쳤다. 알렉카하우는 구덩이 안에 서고, 카렐로가 굳은 눈덩이를 얇게 잘라서 주면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원형의 벽을 만들었다. 그는 처음엔 삼각형의 눈덩이를 사용했으며, 두번째의 눈덩이는 약간 안으로 기울게 해서 계속되는 나사형 모양으로 쌓아 올라갔다.

눈집은 상당히 빨리 올라갔고, 눈덩이로된 타일이 점점 올라가면서 눈덩이의 키가 평행이 되도록 안으로 기울어 지더니 둥그렇게 집이 만들어졌다.

약 한시간이 채 못되어 알렉카하우는 둥그런 눈집 아래서서 이글루의 맨 꼭대기에 얹을 눈덩이를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이 작업이 끝난다음 그는 눈써는 칼을꺼내서 눈집의 남쪽으로 문을낸후, 밖으로 기어나왔을때 카렐로가 부드러운 눈을가지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문밖으로 눈덩이를 떼내어 길고 둥그런 터널을 만드는것을 도와주었다.

날카롭고 매서운 바람소리가 점점 커질때 두사람은 서둘러 일을 끝마쳤다. 두사람은 이글루 바닥의반을 차지하는 잠자는 침상을 만든후에 알렉카하우가 갖고온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왔다.

이제 해는 넘어간지 오래되었고, 머리위로는 찬란한 극광이 초록색을 내며 신경질적으로 나부끼고 있었고, 하늘높이 저쪽에는 눈보라가 밀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돌처럼 딱딱해진 눈은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모래알만한 작은 눈덩이로 변하고, 새로지은 이글루 옆에서 돌풍에 등을돌리고서 있는 두사람을 향하여 사정없이 몰아쳤다.

캠프주위에 하얀 어두움이 깔리자 두사람은 허리를 바짝 굽히고 오네쿄우의 이글루로 통하는 터널속으로 들어가서 겉옷을 벗어 벽에 만들어놓은 움푹 패인곳에 얹어 놓았다. 캠프에는 모두 세가족 뿐이었고, 오네쿄우의 집안의 넓은 침상으로 다 모여들어 새로운 알렉콰우를 환영해 주었다.

터널 입구에켜는 작은사슴기름 등잔이 펄럭였고, 찬국물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알렉콰우가 훌륭한 사냥꾼인헤콰우의 캠프를떠나 며칠동안 바렌을 넘어오는동안이 여행에 관련이되는 굉장한 흥미있는 얘기가 남아있었다.

알렉콰우는 사향소 뿔로 만든 국그릇을 무릎에 올려놓고 침상에 정좌하고앉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웃었다.

드디어 알렉콰우가"내얘기 할것이 있소"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자 여러분, 내 창자가말하는데 정말로 좋은국이랍니다"하고 말하면서 그게 정말이라는 듯이 트림을했다.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통닭구이집

한국의 얼이 담뿍담긴 명물중의 명물. 빈대떡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전기구이 통닭과 함께 특별봉사합니다.

아침1시까지 문을 열고 있사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일차 발걸음을 658 Bloor St.W.로 돌려 보시지 않으렵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고계시거든 537-0432로 전화다이얄을 돌려오십시요.

배달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가호속에 평강을 빌며—.

주인 백

주식회사 신의상사 SPECIAL SALE
기 간 : 1981년10월21일~11월4일까지

	REG	SPEC.
◎ Rowntree aero plain	10.89	7.99
Rowntree prepack king size(10/24's) (coffee crisp,aero,kitkat,smarties,yorkie)	96.90	89.90
Neilson 5lb. chunk	12.89	10.89
Tootsie pop drop 20¢/48's	6.59	4.59
Tootsie roll 20¢/48's	6.59	4.39
Victor's cough drop deal (4 boxes)	20.60	18.95
Hall's deal (6 boxes+10 roll free)	36.05	33.95
Canada products (ice tea제외)	6.59	5.99
Sunpak products (grapefrut제외)	8.69	7.99
Royal toilet tissue (24/2's)	21.90	16.59
Kleenex&Royal paper towel (18/2's)	27.95	23.88
Royal poket tissue	16.50	15.00
New freedom mini reg. super(24/10's)	20.99	18.39
Kotex reg. super (24/12's)	29.85	27.59
Playtex tampon non-deod super superplus	43.89	39.55
Playtex mini pad deod (24/10's)	22.20	19.98
Playtex mini pad non-deod (24/10's)	20.95	18.85
Book matches	16.95	14.95
Johnson johnson baby oil 125ml	19.80	18.00
Aspirin (24/12's) (12/48's)		9.89
Aspirin (12/24's)		7.39
Bubble yum & Care free	3.95	3.59

직원채용
DRIVER : Driving Record가 좋은분으로 밴·트럭을 운전할수 있는분(약간명)
WARE HOUSE 헬퍼 : Retail에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신체 건강한분(약간명.)
주식회사 신의상사 SINCERE TRADING Co, LTD.
116 TYCOS DR. TORONTO, 전화 : 789-7544~7.

봉학농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시내 전역에 직접 배달합니다.
(3 BOX이상주문)

※배추, 무, 파, 갓,
다꾸왕(왜무), 총각무등

☎ : 775-6256

(아침9시이전, 저녁7시이후)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저녁 풀타임 또는 파타임, 점심 파트타임
웨이츄레스 구함
☎: 757-6334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362-2300

BOEKAMT MANUFACTURING INC.
REQUIRE FULL-TIME HELPER, FOR LIGHT ASSEMBLY WORK
MON. ~FRI. 8AM~4:30PM
APPLICANTS MUST KNOW SOME ENGLISH
APPLY IN PERSON
910 MATHESON BLVD. MISS.

세일즈 하실분 구함:
GOOD코미손(오전7시~오전10시 연락바람)
☎ 492-7505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영·스트릿과 에그린톤지역
☎: 483-7444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638-2553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533-2361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DUPONT & SYMINGTON
☎: 537-0892

개인집 팝니다: 11½% 몰개지 2(4개 화장실과 목욕탕); 2가족 싸이즈도됨. $10,000다운(DAVENPORT & SYMINGTON) ☎: 536-8506

스토아 매매
주매상: $4550
☎: 523: 7101(해밀톤)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691-3363

베커 프렌차이스 매매: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
(스카보로지역)☎: 293-1893 (CALL 9AM~3PM)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3500~4000 리스: 4년
ASKING: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1430 DUNDAS W.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오릴리아지역·매상좋은 비지니스:
그로서리·바라이어티·미니마켙, 연매상 35만달러 이상, 3베드룸 살림집및 2베드룸 아파트 있음.
포스트 오피스.
문의: ELEANOR TODISH (1) 862-0788 ext. 53
A. E. LEPAGE(ONT.) LTD.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653-4633
Mrs.코메스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DONUTS SHOP매매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이주 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동양음식 겸한식당:
주매상 2,000달러, 권리금 35,000달러
23 HELENE ST. N. MISSI.
☎: 274-7010 CENTURY BURGER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①주매상 $4,900과 $3,500, 2층에 살림집 있음.
②주6일(핀볼과 비데오게임 17개 포함)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 2804 미세스 김

빌딩매매: ASKING $490,000, 4개 아파트와 음식점 최저 다운은 $100,000.
464 SHERBOURNE ST. 직접내방 요함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일본식 식당: 85좌석, 라운지: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집(902) 443-5789, 식당: (902) 429-6155
라운지: (902) 429-6955. MR. KIM

T. V. 스테레오 최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광고접수 안내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월~금
(오전 9시 ~오후 5시 30분)
※매주 목요일 3시까지 접수된 안내광고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게재됩니다.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부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654-1922. 김 윤 수

분 실

시민권 분실공고:
박광순(PARK, KWANG SOON),
☎: 534-0228, 1395 DAVENPORT RD.

집·방세·하숙

사무실장소 렌트: 대강 600Sq. Feet. 2층.
712 BLOOR ST. W.
☎: 495-2172(크리스티와 블루어 앞)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주택전문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535-0647, 465-1722 대표: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662 김 수 웅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유리: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6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효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츄리냉동
원종성, 이인식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273-7300

한 방 원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247-9347 한의사: 김 장 석 (왕진함)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8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카펫·카텐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기 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중고품 $49.95부터
CALL: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W.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535-7772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100% 효과보장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여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534-1085 김 춘 학

다이야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한국일보 안내광고 접수요령
아래 네모칸에 50자 이내로 광고내용을 적으시고 수표나 모니오더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줄 1칸: 3 회……$10.00
5회……$13.00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LTD. (HANKOOKILBO)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 連載漫畫

"난 지금 어린이로서 한 모든일을 일기에 적고 있어요" "자보자, 엘모야…네가 자라서 일기를 읽어 보면 재미 있을거야" "아니 이건 낙서뿐이잖아…너는 이걸 읽을 수 없겠는데" "사람이 자라면 멍청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書記官이상 531개職位 감축

行改委·經科審·총리企調室 폐지

長次官級 8、1級 35、局長級 百42명

정부는 建國이후 최대규모의 정부機構縮小개편작업을 마무리짓고 長·次官급 8명을 비롯、4級(서기관) 이상 5백31개職位를 폐지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改編案을 확정、15일 발표했다。各部處를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하면 行政改革위원회와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常勤委員포함)、국무총리기획조정실、국가安全保障회의사무국이 폐지되고 경제기획원의 경제협력에관한 기구와 기능이 재무부로 移管되는 한편 1級과 次官補35명、局長級1백42명、課長級 3백46명의 職位가 감축된다。축소되는 5백31개職位는 4급이상 대상總職位5천37개의10%에 해당되는것이다。

部處別 축소내용을보면 12개국이었던 국방부와 상공부가 7개局으로 5개局이 줄어 축소폭이 가장 크고 외무 농수산 건설부가 3개局、경제기획원 재무 문교 보사 교통부가 각각2개局씩줄었다。

감축내용을 직급별로 보면 ▲長·次官級이 8명으로 대상원 78명의 10.3% ▲1級(차관보포함)이 35명으로 1백90명의 18.4% ▲2·3급(局長級)이 1백42명으로 1천1백72명의 12.1% ▲4급(課長級)은 3백46명으로 3천5백97명의 9.6%에 이르러 1級의 감축률이 제일높다。

이번 정부기구의 축소개편으로 연간 인건비2백억원과 부대행정 경비를 포함、약3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돼 내년도 예산안일반행정비의7.3%에 이르게됐다。

한편 이번정비작업 결과발표에서 제외된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와 市道 교육위원회에 대한기구축소작업은 현재 총리실과 내무、문교부에서 작업을진행중인데 4급이상 3백50여개 직위중 60여석이 감축되는 개편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遞信·援護지방廳없애고 兵務·專賣지방廳등 폐합

3室41局 1百35課·지방自治團體 60여자리 縮小

政府기구 縮小개편案 확정

정부는 이축소改編案에 따른 정부조직법 改正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각부처의 職制改正案은 이달중 국무회의의 의결을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後續人事를 11월중에 단행하며 직위감축으로 남는 超過인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교육이나 파견、특별任務班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金容烋총무처장관이 이날 밝혔다。

이번의 정부조직 정비에도 불구하고 2院15部4處14廳의 정부기구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앙행정기관의 下部조직은 현행 20차관보13室(기획관리실제외)、2백1局、1천98개課(4級擔當官 포함)에서 12次官補、10室、1백60局、1백52擔當官、9백63課(4級擔當官포함)로 축소조정된다。

총무처가 各部處와의 협의에 이어 대통령의 裁可를받아 확정된 개편안은 경제과학심의회의 常勤위원(長·次官급위원2인)과 사무국을 폐지해 그기능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에서 국가경제기획과 審査分析업무를 전담토록 기능을흡수、경제기획원에 審査調整局(가칭)을 新設토록했다。

행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구를폐지하되 그기능과 최소한의人力(30명선)을 총무처로이관、성장발전沮害要인개선작업을계속토록했다。

이번 개편작업은 또 각部處의 중간행정단위인 地方廳의 폐지 또는 축소도 포함하고 있는데 ▲5개지방원호청 전부와 ▲8개지방체신청 전부를 없애고 ▲병무청은11개 지방병무청에서 4개청을 줄여 7개지방청으로 줄이며 ▲지방국토관리청은 7개에서 5개지방청으로 ▲전매청은 22개支廳을 11개支廳으로 각각 줄였다。

後續人事 내달 斷行

정부는 15일 機構축소에따른 後續人事지침을 마련、超過人員에대한 인사를 포함、각부처별로 11월중에 일괄적으로 실시토록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 指針은 교육이나 파견자는 장기근무가 예상되는 유능한 人力을 엄격한 선발기준에따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복귀후 관련분야에우선 補職하며 승진에도 우선권을 주도록 총무처에서 집중관리키로했다。

또 이지침은 예를들어 노동부의 근로기준국장은 勞總에의 파견경력이 있는사람으로、상공부 商易局長은무역진흥공사파견근무 경력을 가진사람으로보직토록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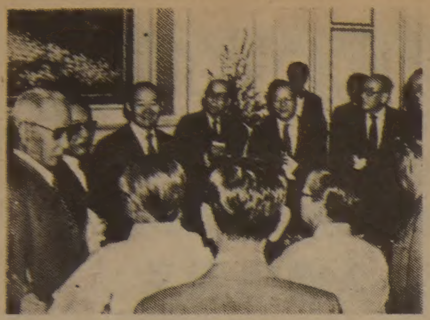
國政調査 발의 民正、反對표명

民正黨은 15일 民韓黨이 低賃炭및 女大生피살사건 수사에대한 문제점을 다루기위해 國政調査權을 발동하자고 제의한데대해 이에 응할수없다고 반대태도를 표명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部處別 機構정비 내용

部處別	整備 내용
대통령직속기구	
經科審	常勤위원(장관급1、차관급1) 사무국(1급1、2급3、4급8)을폐지。기획원장관이 常勤위원겸임、간사는 기획원기획국장이겸임。
국가安保회의	사무국(1급1、2급1、4급2)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비상기획위에서 수행。
監査院	1개국을 폐지하고 室長3명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과장3명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下向조정。
국무총리직속기구	
비서실	총무비서관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춤。
행정조정실	1개조정관 폐지、企調室로부터 청소년선도업무 인수。
기획조정실	기구를 폐지、그 기능중 청소년선도업무는 行調室로、심사분석기능은 기획원에 移管。감축 17人(차관급1、1급2、2급5、4급9)
行政改革委	기구를 폐지、그 人力을 당분간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에 활용、감축(장관급1、차관급4、1급4、2급4、4급7)
社會淨化委	위원(1급) 8명중 3명、2·3급전문위원2명 감축。4급 행정관1명신설。
기획원	정책조정국을 경제기획국에통합。경제협력차관보와 外資관리국、경제협력국을 각각 폐지、그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기획조정실 심사분석기능을 이관받아 가칭 審査調整局을 신설。經協조정관、예산실의 3급담당관2인、과및 4급담당관 12인을 각각 폐지。조사통계국의 3급담당관 1인을 감축。
조달청	물자조정국과 관리국을 통합、물자국으로 하고 그에 따라 3課를폐지。
外務部	국제조약국과 국제기구국을통합、국제조약기구국으로、국제경제국과 통상국을 통합、국제경제국으로 개편。外信文書局을 폐지、외신관리관으로하고、심의관 3인(3급)과 4급담당관 15인을 폐지。
內務部	지방개발국과 자연보호담당관(3급)을 폐지。지방행정연수원 연수기획관(2급)과 6과를 폐지。
山林廳	山林資源조사연구소를 폐지、林業시험장에 통합。임업시험장에 1과 폐지。
財務部	국제금융차관보를 폐지、외환국을 국제금융국에、재산관리국을 國庫局에 각각 통합、4課 國稅심판소 1조정관(4급)을폐지。기획원으로부터 경제협력국의 2課를 인수받음。
專賣廳	參政局을폐지、생산국및 제조국통합、그에따라 2課를 폐지하고 22개 전매지청을 廣域化해 11개지청(지청장 직급4급)을 폐지。
國稅廳	年金징수국과 1課를 폐지。세무서장의직급을 조정하여 4급1인을감축。
關稅廳	본부의 1課와釜山세관의 감시국과 심리국(4급)을통합。
法務部	法務담당관(2급)、출입국관리심의관(3급)、교정기획관(3급)과 1課를 각각 폐지。金浦출입국관리소장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조정。
國防部	방위산업차관보와 人力차관보를 각각 폐지、기획관리실을 신설、기획국을 흡수하고 예산편성국과 재정국을 통합。防産1·2·3局을 防産局으로 통합。警務局을 폐지、의무담당관으로 개편。이에따라 10과를 폐지。국군신문제작소와 국군방송실、국군영화제작소를 통합、국군홍보관리소(소장3급)를 신설。
兵務廳	4급담당관2인을 폐지。11개지방병무청을 7개청5개지청으로 廣域化하여 2급 4인과 4급 1인을 감축。
文敎部	편수국을 장학실에 통합。사회국제국과 체육국을 통합、體育國際局으로 하고、건설관(3급)과 外資사업관(3급)을 각각 폐지하고 5과를 감축。
農水産部	農産차관보와 殖産차관보를 각각 폐지。농지개발국과 농지관리국을 통합、農地局으로、농업개발국과 농업경제국을 통합하여農政局으로、식량국과 양곡관리국을 통합하여 糧政局으로、각각 개편。2급담당관인 농업기획관과 수산조정관을 폐지。局의 조정에 따라 2課4담당관(4급)을 감축。국립종축장장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副場長(2급)을 폐지。국립농산물검사소 부소장(2급)과 국립생사검사소 서울지소장(2급)을 각각폐지하고 1과 감축。
農村振興廳	2급인 産學협동조정관과 연구조정관3인(3급)을 폐지、대신 농약연구소(소장3급)를 신설。
水産廳	국제어업심의관(3급)과 1課를 폐지。
商工部	기업차관보와 경공업차관보를 각각 폐지。섬유공업국과 화학공업국을 통합。방위산업국을 기계공업국에、수입국을 상역국에 통합、공업단지국과 유통경제국을 폐지。기업지도관(2급)과 종합계획관(2급)을 폐지하는대신 산업정책관(3급)을 신설。課와 4급담당관 13인을 폐지。馬山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직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그 부소장을 폐지。
工業振興廳	기술지도국을 담당관으로 개편하고 2과를 감축。馬山도자기시험소장의 직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1과를 폐지。
特許廳	자료국과 2課를 각각폐지。
動力資源部	기획국과 자원개발국을 통합。정책조정관(2급)과 광산보안관리관(2급)을 각각폐지。4급 담당관3인을 감축。
建設部	海外局을 폐지하여 관리국에、産業土地局을 폐지하여 土地局에、상하수도국을 폐지하여 都市局에 통합。3급담당관인 건설기획관、건축관리관、해외협력관을 각각폐지。6과를 감축。국립지리원원장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하고 2개부장(2급)을폐지。지방국토관리청을 廣域化하여 현행 7개청에서 5개청으로 축소 조정하고 이에따라 3개과를 폐지。
保社部	보건국과 위생국을 통합하고 해외이주국을 폐지。정책조정관(2급)과 모자보건관리관(3급)을 폐지하고 課및 4급담당관 10인을 감축。국립보건연구원의 부원장을 폐지、안전성연구부를 신설。
環境廳	國立環境연구소 소장직급을 1급에서 연구관으로조정。
勞動部	해외근로국을 폐지하고이에따라 1과를폐지。
交通部	수송조정실을 폐지하여 局으로개편。도시교통국을 폐지하여 陸運局에、관광진흥局과 관광지도국을 통합하고 3課를 감축、지방항공관리국에 검사과를 신설。
鐵道廳	경영개선담당관(3급)과 자료관리관(3급)을 각각 폐지。2課와 4급담당관3인을 감축。특별동차사무소1課(4급)를 폐지。
海運港灣廳	재무국을 폐지하여 담당관으로개편。2課를 폐지。釜山해운항만청장의 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馬山청장의 직급을 2급에서 3급으로、釜山항만건설사무소장 직급을2급에서 3급으로 각각 하향조정。釜山廳의 2개局과 지방청 2개課를 각각 폐지。
遞信部	電務局과 보전국·계획국을 각각폐지하고 통신정책국을 신설。외국인 전파관리국을 內局化하고、기술조정관(2급)과 9과를 폐지。소속기관은 통신전기공사발족에 따라 통신시설사무소(1급)를 폐지하고 8개 지방청을 폐지、7개대표체신청제로 운영하여 2·3급10인과 4급 165인을 감축。
文公部	방송관리국과 국제교류국을 폐지하고 문화예술국을 문화국과 예술국으로 분리。3급담당관인 문예진흥관과 2課를 감축。顯忠祠관리소장의 직급을 현행1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부소장(4급)을폐지。해외공보관1부(2급)와 민족박물관 사무국장(2급) 중앙박물관 섭외담당관(3급)과 문화재관리국 관리관(3급)을 각각 폐지。世宗대왕유적관리소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七百의총관리소장의 직급을 3급에서 5급으로조정。4급 2인을 감축。
總務處	考試局과 3課를 폐지하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1급) 2인을 감축。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원장(1급)과 정부청사관리사무소 관리부장(2급)을 폐지。3급심의관은 감사관으로 개편。
科學技術處	원자력 개발국과 원자력안전국을 통합、原子力局으로 하고 종합기획관(2급)과 4급담당관(3인)을 폐지。
統一院	기획관리실(1급)을 기획관리관(2급)으로、정책기획실(1급)과 조사연구실(1급)을 통합、政策조사연구실로 각각 개편。2·3급 연구관3인과 4급담당관3인을 폐지。
援護處	단체지도관(2급)·자립원호담당관(4급)을 폐지。국립원호복지공단 발족에 따라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을 각각 폐지。5개지방청을 폐지하고 5개支廳을 대표廳으로 개편하는등 2급2、3급9、4급 22인을 감축。



國政諮問위원 招致 全대통령 午餐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5일낮 靑瓦臺에서 國政諮問위원들에게 오찬을베풀고 내외문제에 관해 환담했다。<사진>

이에앞서 國政諮問회의는 이날상오10시 서울 三淸洞회의실에서 6차회의를 열고 제2차國土개발종합계획에관해 金周南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大使9명에 新任狀

全斗煥 대통령은 15일상오 9명의 신임大使에게 信任狀을 주었다。

信任狀을 받은 대사는 宋光楨駐西獨、李楠基駐필리핀、文熙哲駐수리남、張濟然駐우루과이、申貞燮駐쿠웨이트、金在勳駐니카라과、金相圭駐카타르、張明貫駐세네갈、金在晟駐요르단대사등9명이다。

"食糧확보는 安保와 직결"

全대통령、「세계食糧의 날」談話

全斗煥 대통령은 16일 제1회「세계食糧의날」에 즈음한 談話文을발표、『정부는 특히 오는 87년까지 主穀의 自給을 달성하기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방침이며 이를위해 농업用水개발 10개년계획의 前半期사업을 87년까지 완료하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감자와 麥酒麥등 大전략품목을 중점개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食糧의 안정적확보여부는 곧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과 성장의 尺度가 되는것은 물론 안보와도 직결된다는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고 지적하고『增産과 절약에의한 양곡需要의 안정적확보、그리고 前近代的인 慣行과 편견으로부터의 탈피에의한 식생활양식과 質의개선을 위해 국민모두의협조와 참여를간곡히 호소한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우리는 아직도 主穀을 비롯해 넓은 의미의 식량의 自給自足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며 食생활수준도 先進國에비해서는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더 값진노력을 기울이기를 국민모두에게 강조한다』고 밝혔다。

서울 綜合優勝

體典폐막 全南2위、忠南3위

88년 서울올림픽의 시동을 건 제62회 전국체전은 홈팀 서울이 종합우승을 차지한가운데 15일하오6시 서울운동장 메인·스타디움서 폐회식을 갖고 막을 내렸다。

서울팀은 27개종목을 겨룬 이번 체전서 42、568점을 얻어 우승、2년만에 종합우승을 되찾았으며 全南은 33、939점으로 2위、33、235점을 얻은 忠南은 3위를 차지했다。메달·레이스서도 서울은 금93개、은47개、동73개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全南、全北은 3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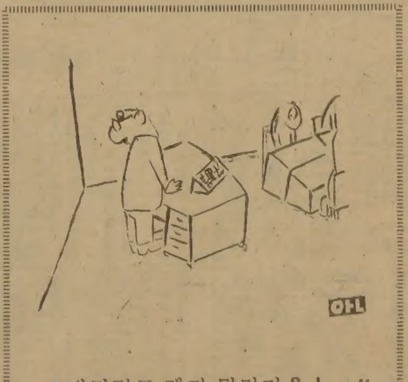
모범 선수단상은 慶南선수단에 돌아갔다。

이번체전 수영서 3개의한국신기록을세운 남고 펑영의 千仁泰(경북)는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으며 해외동포 7팀은 격려상을 받았다。6일간의 열전을벌인 이번체전서는 최종일 역도에서 수립된 한국신기록 5개를 포함하여 한국신기록34개와 대회신기록 177개가 나왔다。

폐회식서 曺相鎬대회장은 폐회사를통해『앞으로 각 시도는 편협한 지역경쟁의식에서 벗어나 88년 올림픽을 겨냥한 힘과 기의 수련장으로써 전국체전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社會漫評



"내자리도 폐지 된건가?!…"

地平線

퀴리부인은 우리나라 어린이文庫의 단골이다。그녀는 노벨상이 창설된 다음다음해 放射線연구로 남편과 함께 노벨상을 받았다。그 3년뒤 퀴리부인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11년에는 노벨상을 단독 수상、34년에 백혈병으로 죽었다。그래서 퀴리부인은 가장 저명한 放射線피해자로 꼽힌다。▼퀴리부인이 노벨상을 단독수상하던 그해、프랑스의 신문들은 어줍잖은 스캔들로 떠들썩했다。퀴리부인이 기혼자인 과학자 폴·랑제뱅 교수와 각별한 사이라는 기사가 톱。주르날紙에 대서특필된 것이다。이로해서 퀴리부인의 아파트주변에 가정주부들의 데모隊까지 몰려들던 참에、노벨상의 단독수상 소식이 날아들었다。학계에서는 이것을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同情票를 모은 결과라고 했다。하찮은 스캔들 기사가 노벨상의 향방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된다。▼하긴 노벨상의 창설자체가 신문의 誤報탓이라고도 한다。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인 알프레드·노벨은 그의 立志傳말고도、자기의 死亡기사를 읽어본 흔치않은 사람으로 기억될만 하다。어느 해인가 그의 형 루트비히가 죽었을때、프랑스 신문은 노벨이 죽었다고 크게 보도했다。그 死亡기사는 노벨을「죽음의 商人」으로 지칭하고있었다。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의 殺傷力을 높였고、그방면의 수요가 그를 백만장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노벨은 형보다 8년을 더 살았다。죽기 전해에 쓴 그의유서는 자기 유산을 몽땅털어、평화와 문학、과학을 위하여 크게공헌한사람에게상을주는기금을 설정하도록 했다。그가 유별나게「평화」를 강조한 까닭은 자기가 본 死亡기사의 충격 탓이라는 얘기다。약간은 기분파요、또 한편으로는 이상주의자였던 노벨은 자기가 인도주의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다。▼여하간 노벨상은 지금 세계 최고의 영예다。이맘때쯤 노벨상受賞者의 시리즈가 시작되면、신문은 그 기사를 빠뜨릴세라눈을밝힌다。그 가운데서도 평화상 부문은약간의정치성까지곁들여 각별한 관심을 끈다。올에는 상이 유엔高等難務官室에 돌아갔으니、1천4백만명의 전세계 難民문제를 생각하여 무난하다하겠지만、노벨평화상은「未解決의 難題」에주어진다는 소감이 새롭다。그런 뜻에서「火藥庫」製作者는 노벨문학상보다는 노벨평화상의 至近거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저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제4회
사격협회 창설기념 선수권 대회
본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4회 창설기념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0월24일(토) 오전10시(우천불문)
장 소 : 토론토·건 클럽(약도참조)
참가비 : AA, A, B, C조(각35달러)
단체팀(3명1조, 각35달러)
주니어(20달러)
※위 참가비에는 실탄비와 디너값 포함됨
시 상 : 챔피온 1명, AA, A, B, C, 주니어 각각1, 2, 3등, 단체상
기 타 : ①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추첨함
②당일 총이 없으신 분은 본협회에서 제공함
연락처 : 757—1097(MR. 한), 755—7635(MR. 백)
※사격대회가 끝난후 사냥클럽에 대한 조직이 있겠읍니다.
주최 : 대한체육회 카나다 지부, 재 카나다 사격협회
후원 : 총영사관, 코리언 저널, 민중신문, 한인실업인 협회
HWY 89 · 장소 · HWY 88 · HWY 400 · COOKSTOWN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 입)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新韓銀行」 내년 3월 開業

在日同胞사업가들 全額出資로

資本金2백50억規模

서울에本店 支店은 서울2·大邱1개만

국내에진출한 在日교포사업가들이 전액出資, 신설하는 新韓銀行이 2백50억원의 자본금으로 내년3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15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在日교포사업가들에 의해 발기된 순수商業금융기관으로서의 주식회사 新韓銀行설립을 內認可허용했다.

新韓銀行은 자본금2백50억원의 전국은행으로 설립되며 본점을 서울에두고 우선내년3월의 開業초기에는 서울 2개지점, 大邱 1개지점으로 시작하되 자본금은 국내에진출하고 있는 在日교포實業人 중심으로 전액출자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新韓銀行설립은 在日교포 국내出資업체의 금융편의를 원활히하고 이를 통해 교포들의 母國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한편 금융기관의 새로운 자율경쟁의계기가되어은행경영의 효율화와 국제화를 촉진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私債 시장 활기 회복

최근들어 기업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私債를 얻어쓰려는 업자들의 손길이 부쩍 늘어나 올들어 침체상태를 거듭하던 사채시장이 연말을앞두고 활기를 되찾을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明洞·小公洞등 사채시장에는최근들어 急錢을 구하려는 기업자금관계자들의 왕래가 부쩍 늘어나면서 어음할인요청이 하루평균 40억~5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錢主들은 부도가날 위험을 고려, 신용도가 낮은 기업어음의 할인을 기피하고 있어 실제거래량은 하루평균 15억~20억원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동안 바닥권에 머물러있던 私債金利도 A급기업이 월2·6~2·7%, B급기업이 2·8~2·9%, C급기업이 3·0~3·3%로 종전에 비해0·1%포인트씩 올랐으며 그나마 C급이하는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사채시장의 한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업자들이 많이 찾아오고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현상은 자금수요가 왕성한 연말까지 계속될것같다고 밝혔다.

財政증권 11~12월사이 1천억원 發行

정부는 오는11월과 12월사이에 1천5백억원어치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한편 예산회계법을 고쳐 재정증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歲計잉여금으로 충당하도록 못박을 방침이다.

1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정부는 올들어 재정증권발행에 따른 이자등 발행비용의 증대를 감안, 금년한도 2천억원가운데 지난5월까지 3백억원어치만을 발행한후 발행을 억제해 왔는데 재정수지의 악화로 연말까지 1천억~1천5백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는 歲計잉여금을 追加예산편성에 사용하지 않고 재정증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에만 전용할수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재정증권은 비인플레적 방법에 의해 재정적자를 메울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행하는것이다.

出荷秋穀 연내 모두現金買入

農水産 3천8백만섬 추정·價格곧確定

정부는 올해 秋穀생산량을 3천8백만섬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출하희망량을 최대한 연내에 전부 현금으로 수매키로 했다고 15일 국회에 보고했다.

농수산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자료를 통해 秋穀수매가는 도매물가및 농가구입가격상승률등 관련지표와 재정사정을 감안, 책정할 방침이며 금년도 실수확량집계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또 81미곡연도(80·11월~81·10월) 외미도입량은 1천5백60만섬(10억6천만달러)이고 금년10월말의 쌀 재고는 9백60만섬으로 추정되고있으며 앞으로도 8백만내지 9백만섬의 재고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偽裝去來엔 稅金추징·刑事처벌

45品目 流通過程 추적조사

菓子·빵·통조림·紙類·織物類등 都賣業者

국세청은 과자 빵 통조림 絲類 직물류등 45개품목에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키로했다. 국세청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등의 위장가공거래로 세금을 포탈하는사례가 많다고보고 이같이 유통단계별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번조사결과 밝혀지는 상습적인 대규모 위장가공거래자에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관계당국에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세청에따르면 조사대상은 추적조사해당품목의 제조업자및 도매업자로 모두 6만5천1백52개 사업자들이다.

絲類 직물류등에대해서는 이미 지난9월초에 조사를시작했으며 이달들어서는 청량음료 의약품 과자 빵등에대한 유통과정조사에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미 조사중인품목과▲통조림▲장난감▲木材▲합판▲가방▲신발류▲가전제품▲금속板및 철관(철근 철물포함)▲차량수선▲자동차부품▲타이어▲금속제생용품▲주방용품▲종이▲도료▲설탕및 조미료▲합성수지▲고무벨트▲화장품▲문구용품▲유리및 同제품▲시멘트▲구두▲전분▲악기▲비누및 치약▲배합사료▲가구▲기타섬유및 의복▲시계▲라면▲끈및 로프▲기타전기기구▲주류▲기타 직물제품및 염색및 표백▲식용유▲貴金屬▲土砂石채취▲기타 건축재료등 모두 45개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3, 4개씩 유통단계 추적조사를벌일방침이다.

課稅특례범위·稅率등 조정

財務部 附價稅制일부 改善·補完방침

정부는 과세특례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세금계산서제도를 개선하는등 附價稅制를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15일상오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서 과세특례범위조정, 과세특례자의 세율조정등 과세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세금계산서제도를 개선, 세금계산서 매수를 조정하고 매출처별 거래명세서를 제출케하며 양식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부는 경기대책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 공제율적용시한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수요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경기조정에 관한 세법규정을 정비하며 각세법에 산재돼있는경기조정에 관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일괄규정토록할 계획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經濟短信

▲一銀, 싱가포르사무소개소=第一銀行은15일상오10시30분(현지시간) 싱가포르시내 OCBC센터에서 李明善행장등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사무소개소식을 가졌다.

▲제1회國際金型機器展=국내최초로 國際金型機器展이 15일여의도에있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전시장에서 개막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金型공업협동조합 주최로 오는19일까지 4일간계속될 이번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비롯 미국, 서독, 이태리, 日本등5개국 51개업체가 7백50여점을 출품했다.

▲關稅廳, 휴대품통관규정例規대폭정비=關稅廳은 오는연말까지 휴대품, 우편물, 無換통관등을 비롯한 각종 까다롭고 중복되는 규정을 대폭정비, 현재 4백11개로된 규정을 약2백90개로축소, 정비할방침이다.

▲輸銀, 2천만달러 차관도입=수출입은행은 13일 런던에서 영국 인터내셔널 웨스트민스터은행으로부터 2천만달러의 借款을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다.

▲中央産業 아파트분양=中央産業은 서울성수동에 5백35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이달말과 오는12월2차에 걸쳐 분양을 실시한다.

▲陽地保險料率 내달부터 인하=국내생명보험사의 공동상품인 양지보험의 보험료율이 오는11월1일부터 최저 1·5%에서 최고 11·3%까지 인하된다.

해바라기서 콩이 쏟아진다

生命工學의 유전자操作 美、食糧增産 기술革命이룩

재래식기술로 해결할수 없는 식량증산문제는 이른바生命工學의 「유전자操作」이라는 기술혁명으로 해결의문이 열리고있다.

미국의분자생물학자와 벤、옥시덴탈、과이저、언론社등대기업은 이미 유전공학기술과 조직배양기술을 의학과 약품분야로부터 식물재배로 돌려 실험적으로 성공하고있다. 근착 타임誌는 방금 불붙은 새로운 기술혁명에의한 농업증산가능성을 특집으로 보도하고있다.

유전자 조작은 식물세포를 유전학적으로 개조하고 시험관속에서 재생산함으로써 종래의 交配방법으로는 10여년이 걸렸던 새로운품종을 단시일내에 만들어낸다. 그런 기술로 비료를 스스로만들어내거나 병을 예방하는 농약을 뿜어내고 염분토양에서 자라는가하면 수 주일간 물없이 견디는 신품종이 출현했다.

농산물유전자 연구소장 티모디·홀과 농무성소속 생화학자 존·캠프등 두 학자는 프랑스산 녹색 콩에서 떼낸 유전물질을 해바라기묘목세포에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한식물의 유전인자를 이종식물의 염색체에옮긴 최초의 성공사례였다. 이신품종식물은 해바라기콩이라 명명됐다.

또 미국학계에서는 스스로 질소를갈무리할수있는식물의 개발에 연구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콩과식물은 이미 뿌리에 사는 리조비움박테리아덕택으로 질소생성능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콩과식물의 질소보유능력을 증진시킨다든가 이와같은 기능과관련된 유전인자를 질소보유능력없는 식물에 이식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우수한 질소고정 능력을가진리조비움의돌연변이체 혈통을유전인자조작으로개발하고 콩을 이것과 접붙임으로써 위스콘신의 세균학자윈스턴·브릴은 보통보다 50%나 큰콩을 생산했다.

그밖에 곡물유전학의 발전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는 다음과같다.

▲바다토마토=캘리포니아대학의 연구원들은 유전자를이식, 바닷물에서 성장할수있는 토마토를 생산했다. 이토마토는 딸기만한 크기로 맛이 아주 좋다.

▲수분없이 자라는 옥수수=일리노이에 있는 드칼브농업연구소에서는 유마의 사막 고온을 견디고 물없이 3주간자라는 속성품종을 개발했다.

▲고단백쌀=美농무성 연구진은 특수조직배양을 통해 재래종 쌀보다 단백질이 6%~10%많은벼를만들어냈다.

올해 노벨平和賞에 유엔難民판무관실

【오슬로 (노르웨이) 14日AP聯合=本社特約】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14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을 81년 노벨평화상수상자로 결정했다.

51년 창설이래 난민의 국제적보호와 난민문제해결에 주력해온 UNHCR는 18개단체와 77명의 치열한경쟁을 물리치고 난민문제해결을 통해 인류애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네바에 본부가있는 UNHCR는 지난 54년에도 2차대전후 유럽난민 구호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적이 있다.

현재의 고등판무관은 덴마크수상을지낸바있는 파울·하트링 (67) 씨가 맡고있다.

◇노벨平和賞받은 「難民구호」 유엔고등판무관실이 「금년도 노벨 평화상수상자로 결정됐다. 사진은 고등판무관인 폴·하틀링 전 덴마크수상이 지난78년 잠비아의 난민촌을방문, 어린이들과 담소하는모습. 【코펜하겐14일AP聯合】

노벨平和賞의 UNHCR

【뉴욕14日UPI=聯合】 81년도노벨평화상을수상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은 1951년에 세계난민구호와 난민문제해결을위해 설립되었다.

UNHCR 설립당시만해도 전세계의 난민과 실향민수는 약 1백만명에 달했으나 오늘날에는 1천6백만 내지 1천8백만명에 이른다.

UNHCR의 방대한 난민구호사업은 덴마크외상을지내고 1973년부터75년까지수상까지 지낸 폴·하틀링씨(67)의 지휘하에 운영되고있다.

사실상 일생동안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하틀링 고등판무관의 전임 UNHCR책임자는 사드루딘·아가·칸황태자였으나 그는 10년동안 판무관으로재직하다가 유엔사무총장이 되려는 자신의야심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퇴임했다.

難民구호위해 設立…博愛精神사 두번째 受賞

실제에 있어서 초대 UNHCR판무관은 1921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의해 임명된 노르웨이의 탐험가이자 과학자겸 정치가였던 프리드토프·난센씨였으며 그도 192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직후 유럽의 1백만 실향민들을 돕기위해 구호·부흥국(UNRRA)을 설립했다. UNHCR는 당초 이스라엘 국가탄생으로 실향민이된 1백만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되었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은 오늘날 유엔구호활동국에의해 전개되고있는데 구호활동국은 팔레스타인 난민수가 이제 1백75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공산국정부들은 UNHCR에 결코 구호기금을 내지않는다.

【오슬로14日AP=聯合】 다음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1981년도 노벨평화상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의 선정이유서 요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지난 1954년에 이어 두번째로 1981년도 노벨평화상수상자로 선정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1천4백만~1천8백만으로 추산되는 엄청나게 많고 또 증가일로에 있는 난민들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육지와 해상을 통해 국외로 탈출하는 수많은 베트남난민들을 목격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또다시 2백만명씩의 아프가니스탄및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발생했다.

난민문제는 세계각국의 당면문제중 하나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대재앙과 시련의 홍수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많은 정치적 난관을 무릅쓰고 난민구호라는 중차대한과업을 수행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치는 인권존중에 바탕을둔 것으로 우리는 이 바탕에 입각하여 난민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국에 돌아갈수없는 난민들에게는 수용중인 국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더욱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기약없이 조국을 탈출하지 않고도 목숨을 구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난민사태는 국가간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활동은 박애와 평화의 이익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하라砂漠 새戰雲

모로코 飛機피격에 「무제한報復」 선언

【라바트14日AP=聯合】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게릴라간의 서부 사하라사막전은 모로코 공군기2대의 피격사건과 관련, 모로코정부가 14일 외세개입을 주장하면서 앞으로무제한 보복전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발전하고있다.

모로코국왕 하산2세는 C130허큘리스수송기와 프랑스제 미라지전투기등 2대의 모로코공군기가 폴리사리오측의 소제SAM미사일의 공격을받고 격추된후 이미사일은 아프리카기술진에 알려지지않은 신형으로서 도저히 폴리사리오 게릴라들의 손으로 발사될수는 없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점으로 미루어 모로코공군기에 대한 공격이 아프리카에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려는 외부세력에의해 야기된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모로코는 자위를위해 강력한보복조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美兵力 2천名파견

中東軍事훈련에 危機신속 對應위해

【워싱턴15日聯合】 미국은 중동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수있는 능력을 강화하기위해 오는 11월 중동에서 실시할 미·이집트·수단 합동군사기동훈련에 약2천명의 병력과 공군요원을 파견할계획이라고 미국방성 고위관리들이 15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또한 「브라이트·스타」(밝은별)란 작전명이 붙은 이 합동군사기동훈련에 오만도 참여시키기위해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 기동훈련에 관한 대부분의 계획은 고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피격사건이 일어난 지난6일 이전에 이미 수립됐던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훈련을 사다트 대통령사후에따른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번 기동훈련에서 당초 계획에 추가된 주요부분은 2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참가하는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기동훈련은 작년의것과 유사하나 그 규모는 더 큰것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들은 또 미·수단합동기동훈련은 미·이집트기동훈련과 별도로 실시되며 아직 이에관한 세부계획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레즈네프 西獨에 11월23일 首相초청

【본15日UPI=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 최고회의 간부회의장 (국가원수) 브레즈네프는 헬무트·슈미트수상의 초청으로 오는11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독을 공식방문한다고 서독정부가 발표했다.

3명負傷·數千대피 멕政府廳舍에 火災

【멕시코시티14日UPI=聯合】 대통령집무실을 비롯한 주요정부기관이 들어있는 멕시코의 유서깊은 내셔널팰리스에서 14일 3대의 변압기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 인부3명이 다쳤으나 건물안에 있던 수천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早期경보기 어제 埃도착

【카이로15日AP=聯合】 2대의 미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15일 하오7시(한국시간) 이집트 영공에서의 정찰활동을 위해 카이로에 도착했다고 이집트정부관리들이 말했다.

이 관리들은 고성능 레이다를 장비한 이 AWACS기들이 최근의 미·이집트합동군사훈련에서 사용했던 카이로서부지역의 한공군기지비행장에 도착할것이라고 밝혔다.

무바라크 正式취임

【카이로 14日UPI=聯合】 13일의 국민투표에서 98·46%의 지지를 얻어 새 이집트대통령으로 확정된 호스니·무바라크부통령(53)은 14일 하오(한국시간) 양원합동회의에서 임기6년의 이집트 제4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했다.

中共 潛水艦폭발 1百여명 死亡

【北京14日AP=聯合】 중공은 1개월여전 비핵형 G급잠수함의 미사일발사시험에 실패, 이 잠수함이 북지나해 해저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1백여명이 사망했다고 14일 아시아및 유럽군사전문가들이 말했다.

이 전문가들은 길이 97·5m의 이 잠수함이 8월말이나 9월초 중공연안 해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발사시험도중 폭발했으며 잠수함에 탑승한 책임자가 『해야할일을 깜박잊은 바람에』 이같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文化短信

「詩와國語」세미나

한국시인협회 (회장 鄭漢模)가 마련한 「현대시와 한국어」란 세미나가 17, 18양일간 수덕사에서 열린다.

발표주제는 「詩에 있어서의 한자」(姜民植), 「시말로서의 한글」(유승우), 「나의 체험적 詩語論」(許英子·張錫周), 「詩語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李健淸) 등이다.

朝鮮前期 학술대회

檀國大 동양학연구소 (소장 黃浿江)는 17, 18양일간 同대학강당에서 「한국중세문화의 특성—조선왕조전기」란주제로 동양학학술회를갖는다.

발표주제는 「조선전기의 회화」 (安輝濬), 「조선전기의 건축」 (鄭永鎬), 「조선전기의 목조건축」 (金正基), 「15~16세기의 불상」(黃壽永), 「15~16세기의 산수화」 (崔淳雨), 「조선전기의 공예」 (秦弘燮), 「耽陵君 壽衣에 관한 小考」 (石宙善) 등이다.

日人學者 강연회

慶熙大 국제평화연구소는 전 소련주재 일본대사 나까가와 (中川融)씨와 京都大 가쯔다 (勝田吉太郎) 교수를 초청, 16일하오3시 慶熙大 본관2층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연제는 「일본과 국제관계」(나까가와)와 「자유와 평화」(가쯔다)이다.

모눈종이 위의 生 〈228〉

趙善作 作　金光培 畵

돌개바람 불다 ㉙

『이 친구 돌아올 시간인데…네 시가 넘었어』

그가 다시 성냥을 그어 손목시계의 숫자판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감독이 돌아올 일에 대해 말처럼 그렇게 초조하게 굴지는 않았다.

『어디 가셨는데요?』 내가 물었고, 그는 『클럽이나, 어디 그런 데겠지』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유장훈감독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그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묵계(默契)와 비슷한 사항이었다.

『가겠어요』

그의 가슴에서 살그머니 몸을 빼며 내가 말했다. 처음 그는 나를 놓지 않을듯 꽉 부둥켜 안았다가 하는수 없다는듯이 힘을 빼며 『방이 어디지? 바로 옆인가?』하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벗어 두었던 순서대로 옷들을 한 가지씩 꿰어 입었다.

『이 여관이 아닌가? 다른 데야?』

그가 다시 물었고 역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진실로 내 방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지도 나는 의문이었고, 그것보다는 그를 유인하듯 서슴없이 그에게 내 방의 번호를 알려주기가 주저되었던 것이다.

『스스로 알아내란 말인가? 누군 물어서 쳐들어 왔나… 그래?』

『그래요』

『어허?』

흡족한 듯 그는 괴상한 비명을 입 밖으로 토해내고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거 한번 생각해볼만한 일인데?』

그가 등 뒤에서 나를 안았다. 그리고 귀 가까이 입을 가져 왔다.

『언제부터 생각한거요?』

『옛날부터요』

『그래?』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옛날에는 아니 바로 전까지도 나는 그런 일을 미처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시범이었군. 숙달된 조교(助敎)의 시범』

옷 입는 일을 중단한 나는 등뒤로 그의 포옹을 받아들인 채 잠자코 있었다. 내가 잠든 새 그가 내 방에 침투하고 나체로서 내 곁에 눕는 등 새로운 일을 떠올리며 나는 가벼운 현기증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내 방으로 돌아가서 나는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 동안 그는 돌아온 유감독에게 적당한 변명을 붙여 내 방으로 올수도 있을것이다. 아니, 그런 일은 비단, 온양에서만 국한되지 않으며, 서울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되풀이 될수 있으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과연 생각이란 무궁무진한 거로군. 도망쳐 다녀야 한다고만 생각하다니… 알았어. 기껏해야 이중생활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종희를 뒤쫓는거야. 하지만 날 너무 고생시키지는 말아줘. 너무 힘들면 포기해 버릴수도 있으니까』

『장난이셔요?』

『아니, 지금까지 종희를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게 미련해서야. 죽으면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허무주의로군요』

『아냐. 누군가를 뒤쫓는다는, 가벼운 긴장감은 나한테 오히려 필요해. 방이 어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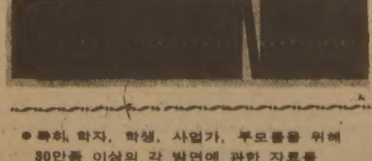
『복도를 꼬부라져서 219호예요』

『알았어. 조금있다가 갈게』

그는 내 윗몸에서 팔을 풀었다. 나는 나머지의 옷을 마저 걸치고 그의 방에서 나왔다.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 모서리에 오두마니 걸터 앉았다.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목배

●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 : 30—6 : 00
THURS. FRI.　9 : 30—9 : 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무서워진 「개구장이들」

國民學校아이 犯罪도 어른 닮아가

본드냄새맡고 슈퍼서 물건슬쩍 / 生活기록부엔 非行으로 얼룩져

학교·부모·사회 힘합쳐 대책세워야

요즈음 어린이들이 무척 영악하다는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영리한단계」를 넘어 「끔찍한일면」까지 지니고 있는것이 현실이기도하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범하는 요즘비행은 말이 비행이지 어른사회의 절도, 강도를 곽닮아가고 있는 것같다. 성인사회가 「똘똘한개구장이의장난」쯤으로 알고 무관심해 있는사이 대부분의 국민학교교실에서는 동물이 오싹해질일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사회의 관심은 대학생이나 중·고교학생들의 문제에만 매달려있어 진짜 이나라의 새싹들이 얼마나 오염돼고있는지를 알지못한다. 설사 걱정하는 교육자들이 있어도이꼬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묘책이없다는게 공통적인 하소연이기도하다.

서울시내 모국민학교 4년 朴모군(10)의 생활기록 카드는 차라리 범죄기록을보는것 같다.

▲5월10일=양호실돈 4천원훔침

▲5월20일=2학년15반아동이 농협에 적금할돈 2천2백50원훔침

▲6월4일=4학년8반체육수업중 빈교실에들어가 학용품, 우유등 훔침

▲6월10일=자전거를훔쳐 7백원에 팜

▲7월10일=경찰서에서연락옴. 6세여자어린이가지키고있는 집에들어가 나일론끈으로 결박하고 1만7천원이든 돼지저금통을 훔쳤다함

朴군의 생활기록은 물론문제학생의 기록이지만 문제는 이와 유사한 생활기록표들이 늘어나고있다는데있다. 朴군의 같은반단짝 李군의기록도 이와 다를게없다.

유년기 비행은 청소년범죄와는달리 얼마나, 어떻게일어나는지에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분석이 없지만 대부분의 일선학교교사들은 『2학년이상 남학생중 평균1백명중한명은 범죄에가까운짓을 하는 문제아동』이라는 통계에 수긍하고있다.

서울의경우 각 국민학교마다 평균20~50여명의 비행아동들이 있으며 변두리학교일수록 더심하다. 변두리에위치한 모국민학교의경우 4~6학년 한반70명중 10여명이 「문제아동」으로 분류돼있으며 담임들도 이들의 선도에는 아예손을놓고있는 형편이다.

문제아동들의 비행은 청소년범죄를 방불할 정도로 다양하다.

서울N국교 6년 J모군(12)은 지난8월초 자기집앞을 지나가는 같은학교3학년 어린이에게 『당장 5만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말고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겁에질린 어린이는 집에가서 아버지 金모씨(42)에게 『엄마몰래 5만원을 주지않으면 난죽어. 아빠도 모르는 척해』라고 졸라, 金씨는 일단 돈을 준다음 뒤를 밟아이 사실을 알아내고 그부모에게 알려준일도있었다.

11살난 L군은 2학년에다니는 9살짜리동생과함께 동네 야산에서 본드를 흡입, 환각상태에 있다 주민에게 발견돼 학교에 인계됐다.

S국교 6년 金모군(12)은 수퍼마키트·가정집등에들어가 빵·저금통등을 훔치다 들켜 파출소에 인계된것만도 금년들어 4차례나되는데 파출소에서도 金군의솜씨와 대담성에 놀라고 있다. 영등포사회복지관 아동상담 金鍾興씨(34)의 분석으로는 『아동들의비행이 흡연, 가출, 무단결석, 집단폭행, 도박등청소년범죄의 유형을 그대로닮아가고있으며 심지어 아이들의 절도가 자전거전문, 열쇠따기, 소매치기등 전문화돼있는 경우까지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에대해 학교나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N국교 Y모교장(54)은 『하루일을은 문제아동을 퇴학시키라고 하지만 교육적으로도저히 그럴수는 없고 놔두자니 다른 아이들까지 물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형사책임이없는 14세미만어린이는 보호자를불러 각서를받고 훈방하는게전부.

한 경찰 관계자는 『훈계방면된 아동이 다시 붙들려와도 그대로 방면할수 밖에 없어 문제아동에 대한 기록조차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우리사회도 이제는 청소년 이전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하며 중·고교에 있는 카운슬링 전담교사가 각국민학교에도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金宗來 기자】

高校生 본드窒息死

냄새맡고 잠자다 머리맡엔 빈튜브11개

15일상오7시께 서울江東區岩寺1洞454 姜世濬씨(49)집 문간방에서 姜씨의 2남 文秀군(18·H공고 3년)이 공업용본드냄새를 맡으며 잠자다가 질식, 숨져있는것을 아버지 姜씨가 발견했다.

姜씨에 의하면 이날아침 文秀군이 일어나지않아 방에 들어가보니 포장용 폴리에틸렌백을 머리에 뒤집어쓴채 숨져있었으며 머리맡에는 D화학 제품의 5g짜리 공업용본드의 빈 튜브 11개가 흩어져있었다는것.

경찰은 文秀군이 본드냄새를 맡으며 자다질식, 숨진것으로 보고있다. 文秀군은 2년전부터 자주 본드환각을 겪어 아버지 姜씨에게 꾸중을 들어왔다는것.

남편이 妻·어린두딸 殺害

TV보다다툼 古物商…쇠뭉치로 머리쳐

中原郡

【忠州=聯】15일 새벽 4시 忠北 中原郡 周德面 新陽里에서 신진고물상을 경영하는 趙相海씨(34)집에서 趙씨의 부인 尹春連씨(29)와 장녀 順姬(8·주덕국교2년) 차녀 凡姬양(7·〃1년)등 세모녀가 둔기에 맞아 숨진시체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하오 남편 趙씨를 진범으로 검거, 범행을 자백받고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한 쇠절구공이와 연탄집게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趙씨는 14일밤 11시께 집안방에서 막내 泰炯군을 재운뒤 부인 尹씨와함께 TV를보다 사소한일로 언쟁끝에 부인이 방문을 박차고나가는데 격분, 뒤따라가 6m떨어진 헛간에서 또 다투다 그곳에있던 쇠절구공이로 尹씨의 머리를 쳐 숨지게했다.

趙씨는 또 부엌뒷방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장녀 順姬양(8) 차녀 凡姬양(7)이 『아버지 싸우지마』하고 울며 소리치자 겁에질린나머지 부엌뒷방으로 뛰어들어 두딸마저 이불로 덮어씌운뒤 절구공이로 마구내리쳐 숨지게했다.

범인 趙씨는 범행후 사건을 위장하기위해 부인의 피묻은 옷가지를 연탄집게로부엌아궁이에넣고 불태운뒤 이웃 처고모 尹여인(43)을찾아가 『집사람이 여기오지않았느냐』고 묻고는 尹씨를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고모 尹씨는 부엌뒷방에서 이불에 덮여 숨진 順姬양과 凡姬양을 발견하고 경찰에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결과 尹씨가 숨진헛간이 안방에서 불과 6m밖에 떨어져있지않아 범행때비명을 들을수있는 사건정황을 미루어 남편趙씨가 모를리없다는점을계속추궁, 끝내범행일체를자백받았다.

지붕서墜落 死境에

農村2세교육13년…「人間常綠樹」

【原州=聯】사재를 털어 불우한 농촌2세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준 江原도 原城郡 文幕面 文幕里 義城고등공민학교 申鉉淳교장(45)이 여학생기숙사 지붕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발을헛디뎌 추락, 사경을 헤매고있다.

농촌2세교육을 위해 지난69년3월 문전옥답 5천평과 시장상가 건물 50평을 팔아 학교부지 3천평을사들여 10개교실을 세운 申교장은 그동안 불우청소년들로부터 등록금도 제대로 받지못해 학교재정사정이 극히어려웠다.

사고가난 13일상오 10시에도 申교장은 여학생기숙사지붕이 수년동안 도색하지못해 페인트칠이 벗겨진것을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칠하다가 높이3m의 지붕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있는것을 학생들이 발견한것.

1億臺 탈세한 私債업자 구속

【忠武=聯】부산지검 忠武지청은 15일 사채놀이를하면서 종합소득세 1억원대를 탈세한 경남무선상회주인 林斗植씨(49·忠武市港南洞8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林씨는 지난70년8월 전 충무수협조합장 陸東天씨(54·中央洞158)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4부이자 1백20만원을 미리받은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44차례에걸쳐 陸씨에게 3억8천6백57만원을 빌려주고 복리등으로 계산한 이자 2억3천6백만원을 받고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방위세등 총9천55만5천3백5원을 탈세했다는것이다.

海士순항訓鍊 출항 80일간 東南亞순방

해군사관학교 제36기 순항훈련분대가 15일상오10시 李銀秀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많은 장병과 가족·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鎭海항을 출항했다.

해사 4학년생도와 ○척의 구축함으로 편성된 이순항분대는 앞으로 80여일동안 濠州·뉴질랜드·자유중국등동남아 11개국 12개도시를 순방하면서 군사외교활동을 벌이고 각종 해상훈련을 통해 장교로서의 전문과 실기를익히게된다.

申鉉鉦기자 동승

한편 한국일보사회부 申鉉鉦기자는 海士생들의 순항훈련과 군사외교활동을 취재보도하기 위해 순항분대에 동승, 함께떠났다.

水災의연금 2차분 本社, 新聞協에전달

한국일보社는 지난9월21일부터 10월14일까지 각계에서 기탁해온 수재의연금 2차분 9천3백84만1천1백58원, 美貨7천1백37달러, 사우디貨 2천4백90리얄을 15일 신문협회에 전달했다.

표주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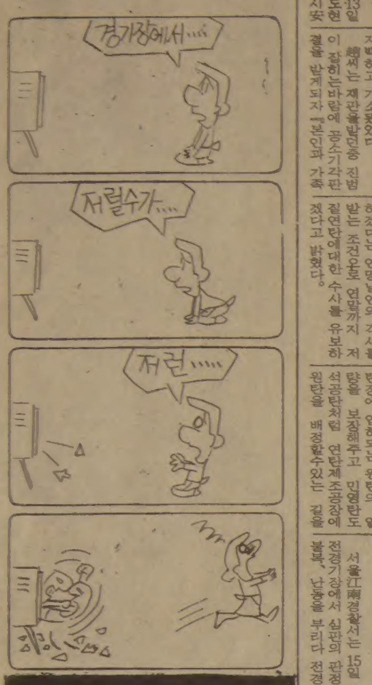
愛人 다른남자와 約婚하자 문앞에 이부자리펴고 농성

○…光州市 北洞 모씨(26·상업)는 7년이나 사귀어온 같은 동네에 사는 애인 李모양(25)이 두달전 다른 남자와 약혼하자 몇차례 마음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끝에 13일하오5시쯤 李양집 대문앞에 이부자리를 펴고 24시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南씨의 농성사실이 알려지자 1백여명의 주민들이 몰려드는등 소동이 벌어졌는데, 보다못한 한 주민의 신고로 南씨는 14일하오4시30분께 인근 파출소로 연행됐다.

○…파출소에서는 『오죽속이 상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느냐』고 동정을 하면서도 농성을 풀고 귀가토록 南씨에게 종용했다.【光州=聯】

두꺼비 안의섭



용의자 폭행등 強壓수사

捜査官에 被害배상책임

大法, 본인·가족고통들어判決

범인이아닌 용의자를 강제연행, 폭행을 가하는등 강압에 의한 수사를 한 수사관은 정신적 고통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13일 국가가 전직 경찰간부 李洛萬(경북安東市法尙洞81의6) 李寅和씨(경북安東市東門洞141)등 2명을 상대로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李씨등은 연대하여 1백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는 지난 75년8월13일 발생한 安東市安奇洞 李도헌씨 살해사건과 관련, 당시安東경찰서형사계장과 반장이던 李씨등이 진범으로 단정 구속송치한 趙在勳씨(34·경북安東市雲興洞442)가 뒤늦게 진범이 검거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내 趙씨에게 1백15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되자 『李씨등이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잘못을저질렀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당시 趙씨는 범인과비슷한 옷을입었다는 조모씨의 참고인 진술에따라 경찰에연행돼 폭행등을당한후 범행을 허위자백하고 기소됐었다.

趙씨는 재판을받던중 진범이 잡히는바람에 공소기각판결을 받게되자 『본인과 가족이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소송을내 승소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참고인의 진술만 믿고 진범도 아닌 사람을 연행, 강압적인 수사를한 李씨등은 趙씨가입은 피해에대해 책임을져야한다』고 밝혔다.

"低質炭 만들지않겠다"

大邱업자 35명도 검찰에覺書

【大邱=聯】대구지검 李永旭검사장은 15일하오 검사장실에서 대구경북지방의 연탄제조업체 대표33명을불러 석탄수급법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李검사장은 이날 연탄제조업자들로부터 저질연탄을 만들지않고 연탄수급을 원활히하겠다는 연명날인의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연말까지 저질연탄에대한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검사장은 이자리에서 업자들에게 『월동기에 연탄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주민들의 고발등이 있을때는 전검찰력을 동원, 일제수사를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연탄제조업자들은 각서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탄광에서 석탄저탄장에 입하되는 원탄의 열량을 보장해주고 민영탄도 석공탄처럼 연탄제조공장에 원탄을 배정할수있는 길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했다.

大學生 피살

깨진병에찔려

【濟州=聯】15일상오7시45분께 濟州시道南동 영주여객 자동차회사 앞길에서 濟州대 한농학계열1년 姜英宰군(21)이 오른쪽 배를 깨진 유리병에 찔린채 숨져있는것을 길을 지나던 吳일한씨(38·濟州市二徒2洞)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吳씨에 따르면 이날 아침 출근을 하기위해 자전거를타고 길을 지나는데 姜군이 피투성이가 된채 엎드려 숨져있었으며 현장에는 피가 묻은 깨진 유리병 2개와 신발등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

◇低質炭말썽속 쌓이는「버럭」 저질연탄의 원료가됐던 버럭(無級炭)더미。저질연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버럭의 반출및거래가 정지되자 강원도 탄광지대 곳곳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다。【旌善=聯】

심판判定불복 亂動

體典서 忠南태권도간부등 2명立件

서울江南경찰서는 15일 체전경기장에서 심판의 판정에 불복, 난동을 부리다 전경대원에게 전치10일의 상처를입힌 충남태권도협회이사 金判洙씨(41)와 임원 朴善鎔씨(33)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다.

金씨등은 14일하오4시40분께 서울江南區蠶三洞 국기원에서 열린 태권도 웰터급 결승전에서 경남대표와 백중한 경기를벌인 충남대표가판정으로 패하자 심판 판정에 불복, 충남·충북 응원단 1백여명과함께 항의소동을 벌였는데 이를말리던 江南경찰서소속 전경대원 曺永哲상경(21)과 金洛玄상경(22)등 2명에게 폭력을휘둘러 각각전치10일의 상처를입혔다는 것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普急기관사 法廷구속

慶山列車추돌 5명에 禁錮~懲役1년6월

【大邱=聯】慶山열차추돌사고 관련피고인 5명에게 금고5년에서 징역1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大邱지법 형사4단독 李석우판사는 15일낮 大邱지법제2호법정에서 열린 慶山열차추돌사고 관련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제116특급열차기관사 文昌學피고인(46)과 제302보급열차기관사 朴二鐘피고인(43)에게 업무상 기차전복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구형같이 각각 금고5년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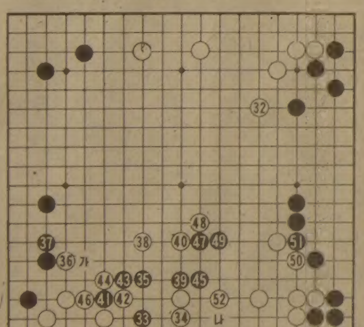
또 특급열차 보조기관사李在文(47) 여객전무 金岩宇피고인(34)에게도 같은죄를 적용, 각각 금고3년(구형금고5년)을, 그리고 慶山郡孤山面 신업계장 具土雄피고인(37)에게는 업무상과실기차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구형징역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입건된 朴二鐘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한국일보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3譜32~52 (각 5시간 덤 5집반)



白(6段) 姜 哲 民<1敗>

黑(4段) 姜 ○ 動<1勝>

얼마전 趙治勳名人에게 本因坊位를 잃은 武宮正樹9단은 대세력작전을 능기로하여 「宇宙流」라는 말을 듣고 있다. 법상적으로는 엄두도 못낼 대세력을 바둑판이 좁다면서 펼치는 것이다.

이와는 趣가 좀 다르지만 姜6단도 실상은 화점을 살리는 세력작전으로 일찍부터 이름을 떨치고있다. 따라서 상대하는 사람은 항상 姜6단의 세력에 신경을 써가며 그대책에 부심하는 모양이다.

白32는 한발우측에 붙여뗀는것이좋았다는 국후평이지만 이것으로 우변黑진에 영향을 주면서 하변과 아울러 상변에 세력을 부식한것은사실이다.

이리하여 집차지바둑으로 장기전이 예상되었을때 姜4단은 5분남짓 생각한끝에 감연히 黑33으로 하변 白세력속에 처들어갔다.

黑33侵入으로 苦戰

보통말하는 바둑格言으로 「삼삼집이 커보이면 진다」는것이 있다. 그런줄 뻔히알고 또 33으로 「가」자리에 뛰어두는 편이 좋은줄도 알면서 일전불사격으로 파괴작전을 감행한것이다.

잔잔한大河에 던져진 黑33이 격랑을 일으킨격。기어이 일대공방전은발발하고 말았다。그리고 이것은 白38의 모자를 쓰게되면서 黑은 갑자기 고전에 말려들게 되었다。

자, 어떻게 수습할것인가。여하간 黑39이하의 탈출이 시급한모양인데 그러나 이동안 반격의 기회는 있었다。白46으로 52에먼저 뛰지않았을때 黑47로 「나」에 뛰어들어 싸워볼수있었던 것이다.

白이52에 손이돌아가자 黑은 공배 만두면서 빠아나기에 바쁜형이 되었다.【一凡】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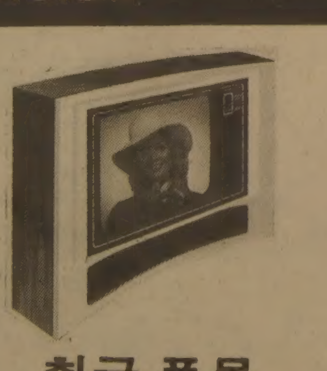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어린애를 감시하고 돌볼 때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홍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力道서 韓國新 5개

安孝爵 尹錫元 安智榮

重量級 트리오 國體 피날레 장식

62회 全國体典

◇메달집계

	금	은	동
서울	93	47	73
부산	34	42	50
대구	16	27	30
인천	27	36	28
경기	39	32	61
강원	13	28	40
충북	35	38	43
충남	43	62	69
전북	37	32	65
전남	55	52	69
경북	21	28	40
경남	49	40	64
제주	2	4	0
재일	1	2	2
재미	1	1	2

체전 최종일인 15일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한 각경기장서는 영예의금메달을건 10개종목 결승전이 불꽃을 튀겼다. 예정을 하루넘겨 力道중량급 경기서는 아시아의 최강자인 安智榮(서울 현대)과 安孝爵(경기 한체대) 尹錫元(서울 중앙체)이 5개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 체전 피날레를 장식했다. 1백㎏급의 安智榮(25)은 인상 2차시기서 자신의 종전기록을 0.5㎏ 경신한 151.5㎏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으며 용상에서도 종전기록을 1.5㎏능가한 3백44㎏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백10㎏급의 安孝爵은 용상에서 190.5㎏을 들어 68년 黃鎬東이 수립한 종전기록 190을 13년만에 경신했으며 합계서도 335·5㎏을 마크, 한국신기록(종전 330㎏)을 세웠다. 尹錫元은 1백10㎏이상급 인상에서 145㎏의 한국신기록(종전 140)을 기록했다.

축구 고등부 결승서는 전국가대표 崔在模코치(37)가 이끄는 신예 群山第一高가 1, 2년생들의 분투로 청룡기 우승팀인 강호 安養工과 0-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서 5-4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체전 구기 종목서 최대의 파란을 일으켰다. 群山第一中 출신 선수들을 주축으로한 第一高로서는 창단 1년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이었다. 농구남고부 결승서도 예상을 뒤엎고 全北師大附高가 강적 龍山高에 53-36으로 완승, 이 종목서 부동의 우세를 자랑하던 서울세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은 善一女高, 東國大, 남일반의 福祉團, 여일반의 한국화장품이 모두 우승, 종합점수에서 절대 우위를 지켰다.

야구 고등부결승서는 전실업한 플레이를 자랑하는 慶北高가 금년 처음 전국대회우승을 노리던 仁川高를 9-4로 물리치고 고교야구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仁川高는 안타수에서 16-12의 우세를 보였으나 4회말 慶北高에 집중5안타를 맞고 2실책, 폭투가 겹쳐 7실점, 자멸했다.

배구 여일반결승서는 慶南 韓一合纖이 장신 블로커 鄭和淑과 세터 鄭玉南의 활약으로 오랜 부진을 씻고 강적 江原現代를 3-1로 격파, 이변을 일으켰다.

국가대표들의 경합장이된 탁구 일반부 결승서는 金浣 金詰澤 柳時興이 활약한 慶北 第一合纖이 서울국정과를 4-1로, 李壽子 金順粉등이 버틴 大邱 第一毛織은 釜山 우성식품을 4-0으로 각각 완파, 남녀정상을 차지했다. 탁구서는 서울女商이 全北 相一女高에 4-3으로 패하는등 지방의 강세로 서울이 부진했다.

群山第一高 축구優勝

安養工과 승부차기

慶北高 仁川高꺾고野球 4冠王

李德姬 브르덴 테니스 1회脫落

【아끼시마(日本) 14日AP=聯】韓國의 李德姬는 14일 日本아끼시마에서 개막된 총상금5만달러의 보르덴클래식테니스대회 1회전에서 濠洲의 네리다·그레고리에게 세트스코어 2-1로 패해 1회전에서 탈락했다.

全美오픈테니스대회에서 16강까지 진출한바있는 시드7번의 李德姬는 이날 무명의 그레고리를 맞아 첫세트를 4-6으로 내준뒤 둘째세트를 6-3으로 빼앗았으나 세째세트를 2-6으로 내주는바람에 어이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金春浩·韓恩淑組 혼합複式 3회전에

亞洲테니스 8게임 승리

【치앙마이(타이)=聯】81년 아시아테니스선수권대회가 14일 泰國치앙마이의 아난타시리코트에서 개막, 韓國은 첫날 남자단식에서 宋東煜을 제외한 8개 경기를 이겨 2, 3회전에 각각올랐다.

韓國은 이날 남자단식에서 李우용이 泰國의 스포트를 2-1로 누른뒤 金春浩와 田昌大도 스리랑카의 아누르, 臺灣의 에아이싱을 각각 2-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韓國은 또 혼합복식에서 1회전을 모두 추첨으로 통과하고 田昌大·趙恩玉조가 日本의 유끼·히로요끼조를 2-0으로 물리친것을 시작으로 金男淑·李우용조, 金春浩·韓恩淑조가 모두 3회전에 올랐다.

이날경기에서 시드1번~6번의 선수들은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漢陽大 1次戰패배 퀸즈컵蹴球 준결

【방콕14日=聯】漢陽大는 14일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속행된 11회 퀸즈·컵쟁탈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 1차전에서 홈팀인 라즈프라차에 1-0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漢陽大는 16일의 2차전에서 2골차로이겨야 결승전에 진출할수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流星의 賦 <209>

李炳注作 李友範畵

何處秋風至 ⑦

여립은 기축년(己丑年) 겨울을 거사의 시기로 잡았다. 그러기에 앞서 나름대로의 준비는 있었다.

천안(天安)에 길삼봉(吉三峰)이란 화적(火賊)이 있었다. 원래 종의 출신이었는데 용맹이 뛰어나고 무술의 달인(達人)이라서 관군이 아무리 애써 잡으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길삼봉의 이름은 점점 사방에 퍼져나갔다. 정여립은 그 길삼봉의 이름을 이용했다.

『길삼봉·길삼용 형제는 신병을 거느리고 지리산, 계룡산을 왕래한다』

『정팔룡(鄭八龍)이란 사람이 곧 임금으로 등극한다』

『호남 전주 지방에서 성인이 나타난다』

는 등의 말을 지함두를 시켜 퍼뜨리게 했다. 길삼봉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삼봉이 정팔룡을 위해 신병(神兵)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댄 것이다. 정팔룡이란 정여립의 아명(兒名)이다.

뿐만 아니라 여립은

『목자(木子=李)는 망하고 전읍(奠邑=鄭)이 흥한다』

는 노래를 지어 퍼뜨리는 한편 자기의 심복인 중 의연(義淵)을 시켜 목판(木板)에 새기게 하여 지리산의 굴속에 감추어 두게한 후 뒤에 산구경 갔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꾸며 세인(世人)들의 가슴에 은근한 기대를 심었다.

중 의연은 운봉(雲峰)의 아들인데 중국 요동(遼東) 사람이라고 속여 나라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런 소릴 퍼뜨리기로 했다.

『나는 요동사람인데 해동(海東)에 왕기(王氣)가 서려있기에 한양에 이르르니 왕기는 전라도에 있었다. 그래서 전라도에 와 보았더니 그 기운이 전주 남문 밖에 있더란』

여립의 심복의 하나인 지함두는 서울사람인데 본명을 경함(景涵)이라고 했다. 젊을때 가까운 친척여자와 간통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각지로 도망쳐다녔다. 글재주가 있는터라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한두가 장흥의 문희개(文希凱) 집을 찾아가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시를 지어 벽(壁)에다 대서하길—

「군중두죽광유기 窘中豆粥光猶記 하황금조주일호 何況今朝酒一壺」(궁색할때 콩죽 한사발을 얻어먹은것을 잊지 않았거늘 어찌 오늘 아침 술한병 대접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있으랴)

여립이 한때 그의 심복들 지함두, 의연, 도잠(道潛), 설청(雪淸) 등과 함께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을 들러 계룡산(鷄龍山)으로 와서 어느 폐암(廢庵)에 들러 시 한수를 지어 벽에 붙였다.

「객행남국편 客行南國遍 계악안초명 鷄岳眼初明 무기개형운 戊己開亨運 하난치태평 何難致太平」

(남쪽 나라를 두루 돌아보았지만 계룡산에 와서야 비로소 눈이 뜨인듯 하다. 무와 기 양년에 좋은 운이 열릴 것이니 태평한 세월은 오고야 말것이다)

그리고 보니 계룡산을 신격화(神格化)한 것은 정여립이며 계룡산에서 정(鄭)이 나서 왕이 될것이란 비결(秘訣)의 근거도 정여립에게 있었다고 할밖에 없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⑦⓪

6·25가 터진 다음날 景武臺에서 李대통령이 급히 불러들어갔다. 나는 野人의 입장이었다. 6·25가 나기전달있은 2代의원 선거에서 낙선된뒤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독서도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한가한생활을 보내고있던때였다. 경무대엔 나처럼 두달전에 野人이된 李範奭 前국무총리도 와있었다. 무초美대사와 국무총리서리겸 국방장관 申性模가 있었고 그자리에서 서울市警국장 金泰善이 현황보고를 했다. 金泰善국장은 이미 앞서 北의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요지의 5월위기를 진언했었다. 申性模국방은 그의 정보를 일축해버리고 점심은平壤 저녁은新義州에서들며 통일을할수있다고 豪言壯談해온터다.

두사람의 보고는 정반대였다. 金국장은 이미공산군이 서울에 접근하고 있다고했고 申국방은 철통같은 국군의 방어태세로 敵軍이 38線으로 물러났다고 했다. 申은 그러면서 李대통령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너무나 사태를 安易하게, 그것도국가원수에게 국방의책임을진 인물이 이런식으로 가볍게보고하는것을보고나는 어이가 없었다. 申性模는 얼마전 국회에서 5천톤짜리 배한척만 주면 2일안에 平壤을 점령해보일 수 있다는 妄發을 늘어놓은 爲人이 아닌가. 李範奭도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다.

國難의 渦中에서

지난날 滿洲에서 抗日무쟁을해온 李範奭은 武人답게 사태를 짐작하는 눈치였다. 앞으로 24시간이면적의 主力이 서울에 들어올 것이니우선 적을 막기위해선 韓政府쪽의 탱크길에 휘발유를 매복하는 방법을 쓰자고 건의했으나 申은 들은 척도하지않았다.

우리는 서울시민을 피란시키고李대통령에게 南下를 건의했으나 申性模는 北으로 진격, 공산군을 패퇴시킬 판인데 무슨 얘기냐며 펄쩍 뛰었다.

거짓勝戰방송에속아 뒤늦게 南下길

大田 李박사命받고 釜山서 美軍맞아

景武臺에서 얘기중에『지금 적의 탱크가 미아리까지 왔다』는 말이 흘러들어와 좌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판국이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어이없어 말도 안나온다.

그날 밤12시쯤 집에 돌아왔다. 방송을 들으니李 대통령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우리 국군이 적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은 이말을 믿고 漢江을 건너가 하지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국회에선『서울을 死守한다』는 결의를 했었다.

李 대통령의 음성으로 나온 방송은 국방장관 申性模와 내무장관 金孝錫이 미리녹음을 해 되풀이 방송한 遺作劇이었다.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것이다. 이바람에 나중에 피란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많이 희생을 당했는가. 새벽에 경무대에 전화를 해봤더니 不通이었다. 戰況을 알아보기위해 몇몇要人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으나 감감소식이었다. 나의 忠正路집 건너편에 있는 李範奭집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받질않았다.

정부와 대통령, 책임있는 要人들이 모두새벽에 남쪽으로 내려가버린 것이다. 난 27일 아침 이소식을 듣고 통분을 금할수없었다. 라디오에선 국군이 이기고있는것처럼 가장한 녹음방송만이 계속흘러나오고 있었다.

운전사 趙주임(警衛였기때문에 그렇게 불렀다)이 빨리 피란가자고 성화였다. 妻는 아들과 함께 남을테니 나혼자 떠나라고했다. 趙주임이 큰일났다면서 우리가족을 떼밀다시피 지프에 태웠다. 당시 딸은 미국에가는 중이었는데 태평양상의 배안에서 6·25를 들었다고 훗날 말했다.

나는 水原으로 갔다. 옷도 못걸치고나온妻는 그곳에서 저고리와버선을 얻어신었다. 가지고나온 짐이라고는 아들기저귀보따리 하나였다. 당시 水原에 살던 누님이 龍仁으로 피란가자고 했으나 정부일을 도와야한다면서 大田으로 향했다. 그때 라디오에선 정부가 水原으로옮겼다는 방송이 나왔으나 틀린 헛풍수를 치는 헛된 소리였다.

도중에 烏致院에서 李範奭을만났는데 그는 지프에 트레일러를 달고 트렁크를 두어개 싣고있었다. 날보더니 미안한듯 얼굴을 붉히며 말없이 사라졌다.

大田에 가서 사돈인 金甲淳씨의 儒城집으로 갔다. 좀 쉬고있으려니 道지사등 몇몇이 와서『大邱로갔던 李 대통령이 大田으로 올라온다』면서『도청에서 閣議를 할 것』이라고 했다.

忠南도청에 가서 李 대통령을 만났다. 白性郁내무, 申性模국방등각료들이 모였다. 난 閣員이 아니었으나 李 대통령이 불러 閣議에 참석했다. 거기서도 申性模는 국군의 反擊을 운운했으나 李박사는 외면했다. 그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老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려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었다.

그날,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東京의 맥아더사령부에 對韓긴급 무기원조를 명령하고 美軍을 투입한다는 특별성명을 냈다. 모두가 뛸듯이 기뻐했다. 워싱턴의 張勉駐美대사와 맥아더 사령부에 긴급연락을 계속하고 있던 李 대통령은 나를 불러 釜山으로 빨리 내려가라고 지시했다. 『워커장군의 美8軍團이 들어오니 정부를 대표해 그들을 맞고 각별한 대비책을 세워놓으라』는 당부였다. 난 하룻밤을大田에서 자고난뒤 밤차로釜山으로향했다. 野人의 몸으로 정부의 일을 맡아하는것이지만 나라가 위급한 이마당에 일일이 따질겨를이 없었다.

◇서울을 떠난 李 대통령이 水原비행장에서 무초駐韓美대사㊨와 대책을 협의하고있다. 왼쪽은 極東美軍司의 존·처치준장과 E·드럼라이트美대사관참사관.

블론디漫畵 그려온 짐·레이먼드씨死亡 딘·영혼자그릴듯

【뉴욕15日UPI聯=特約】40년간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만화 블론디를 그려온 만화가 짐·레이먼드가 플로리다州 보인턴비치에서 15일 사망했다. 향년64세. 그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왔다.

짐·레이먼드는 칙·영과함께 블론디만화제작에 참여, 이만화를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만화의 하나로 만들었다. 그는 지난73년 칙·영이 사망하자 그의아들 딘·영과 공동으로 블론디를 계속 그려왔다.

또 접대부被殺 도주20代犯人 자수

【釜山】14일 하오7시께 부산 釜山鎭區 凡田洞338 속칭 300 유락가 24호(주인·金英子·50·여) 2층방에서 시내S가스회사 종업원 孫榮業씨(23·경남梁山郡東面沙松里487)가 접대부 崔貞順양(33)을 목졸라 숨지게하고 달아났다가 4시간뒤인 밤11시30분께 부산東來區 巨堤3洞 진주식당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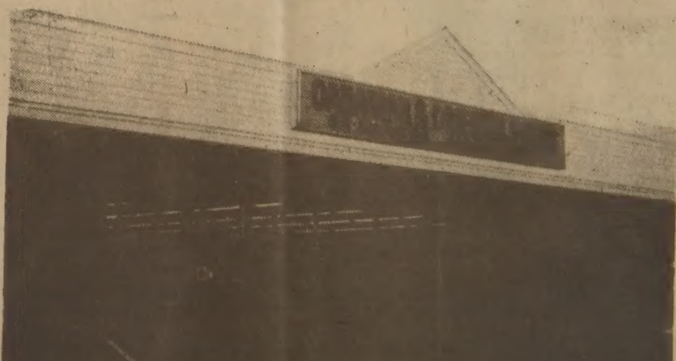
孫씨는 이날 하오3시30분께 숨진 崔양을 찾아와 놀다가 崔양을 목졸라 죽인뒤 달아나 진주식당에서 맥주14병을 시켜마시며 여종업원들에게 『나는 사람을 죽였다. 너희들도 내손에 죽을지 모른다』는 등의 말을해 수상히 여긴 여종업원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P.A.T. SUPER MARKET

말씀만 하세요 없는것이 없읍니다.

한국식품동부지점



서양 식품류

	REG.	SPECIAL
설 탕2kg	$ 1.79	$ 1.39
밀가루(Robinhood) 3.5kg	3.85	2.59
Unico Oil(튀김오일) 3l	4.29	3.50
Nescafe 10 온스	6.69	5.49
Coke 24×10온스	7.99	5.99
사 과 lb 당	69¢	49¢

한국 식품류

	REG.	SPECIAL
물고추 lb 당	99¢	89¢
갈비(프로즌)lb 당	1.59	1.09
불고기 lb 당	2.69	1.99
참기름(일제) 1 캔	10.50	7.50
생굴(12온스 Pk.)	2.95	1.99
회조개 lb 당	1.59	1.15
삼양간장	6.45	4.95
북어포(중국산) ½lb	1.69	99¢
소꼬리 lb 당	1.49	99¢
마 늘 〃	1.99	1.49
생 강 〃	〃	〃

※위 품목을 매진될때까지 같은 값으로 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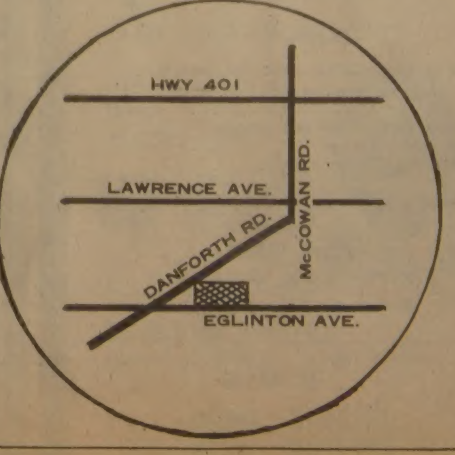
생 선 종 류

※얼지않은 생선을 원하세요.

민어회감, 물오징어, 생동태, 생도미, 생조개, 숭어, 고등어

프 로 존

해삼, 멍게, 전복, 생굴, 낙지, 마구로(튜나), 새우, 오징어, 문어, 조기, 박대, 회조개, 아지



한국식품동부지점

2810 EGLINTON AVE. E.(ELANE PLAZA내)

전화 : 261－6111

개점시간 : 월, 화, 수 : 오전9시～오후10시, 목, 금, 토 : 오전9시～자정까지 〈일요일 휴업〉